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Spirit-Filled COWORKERS OF JESUS

*Jesus Christ: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bears much fruit”.*

발행 2023년 11월 20일 / 저자 헬무트 하우바일 / 번역인 오순근 / 코디네이터 연주희
(juheeyeon@gmail.com) / 출판인 남수명 / 출판사 시조사 / 출판등록 1955년 1월
29일(제5-2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 홈페이지 <http://www.sijosa.com> / 대표전화 (02)3299-5300 / 팩스 (02)960-0848 / 가격 7,000원

미니시리즈 ③권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40Days
공부 분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원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

헬무트 하우바일 저
오순근 역
안창현, 정재현 감수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시조사

이 책을 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라는 이 책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초신자를 위한 <전도를 위한 편지>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12개의 중요한 팁이 나와 있습니다 (p211).

또한 이 책에는 <전도를 위한 편지>의 상세한 사용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사용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도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구도자와 함께하는 것(편지 13 참조)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편지 14 참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새로운 힘과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의 성경절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성경절들은 개역개정에서 인용하였으며 다른 것은 명시하였다. - 역주

이 책의 각 장 끝부분에는 생각해 볼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면 기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책에는 40일 동안 이 책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모임들을 위해 “40일 스터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테스트해 보았고 그 효과가 검증된 <전도를 위한 편지>라는 이름의 시작 세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 예수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요 15:5 한글킹)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마 11:28) 예수께로 가는 누구든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초청받았습니다(요 15:4).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는 의미는:

- ▶ 계속하여 그분의 영을 받고
- ▶ 그분을 섬기며
- ▶ 모든 것을 바치는 삶 (시대의 소망, 676)을 의미합니다.

이 설명은 참으로 저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입니다(요 15:11). 또한 이 설명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쁘고 만족한 생애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교재 시리즈 3권의 토대가 되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교재 시리즈들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시리즈 ①권 -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 충만함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끊임없이 그분의 영을 구하고 받음으로 가능

시리즈 ②권 - 『예수님 안에 거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로 가능

시리즈 ③권 -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당신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나요?

그분을 섬김과 그에 따르는 놀라운 결과들에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가능

■ 제안

제 경험으로는 두 명이 스터디 플랜에 맞춰 매일 함께 헌신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 소중한 진리 연구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부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화나 화상 채팅(스카이프, 줌 등)으로도 공부 가능합니다. 또한 그룹으로 매일 또는 매주 토의와 기도 시간을 가진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Day 1

[서론] 예수님을 통해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 13

나는 어떻게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무엇인가요?

Day 2

[도입]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 25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가?

Day 3~6

Day 3: p40; Day 4: p47; Day 5: p 53; Day 6: p60

[제1장]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 39

나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Day 7~10

Day 7: p73; Day 8: p80; Day 9: p86; Day 10: p92

[제2장]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 ... 72

봉사, 도움, 나눔, 축복!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자원함이란 -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

Day 11~14

Day 11: p 107, Day 12: p112; Day 13: p118; Day 14: p125

[제3장] 누가 일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 106

다뤄야 할 중요한 질문: 나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나요?

Day 15~16

Day 15: p138; Day 16: p145

[제4장] 소중했던 훈련기간 ... 137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때 적절한 접근 방식은 얼마나 중요한가?

Day 17~20

Day 17: p158; Day 18: p166; Day 19: p173; Day 20: p179

[제5장]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 157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두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기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나요?

Day 21~23

Day 21: p187; Day 22: p191; Day 23: p198

[제6장] 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 186

올바른 순서가 중요한 이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순서: 1-예수님, 2-제자 훈련과 성령, 3-성경적 교리들, 4-침례, 5-훈련

Day 24~28

Day 24+26: p210; Day 25+27: p217; Day 28: 225

[제7장]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나요? ... 209

<편지 13>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붙잡음”을 사용하여

함께 성경 연구하기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붙잡으라 ... 217

〈편지 13〉

“저는 우리 교단의 매우 중요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편지에서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Day 29~31 Day 29: p237; Day 30: p245; Day 31: p250

**[제8장]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할 수 있나요? ... 236**

〈편지 14〉(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 어떻게 가능한가?)와

이 책을 함께 읽기

Day 32~33 Day 32: p256; Day 33: p269

**[제9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구들 ... 255**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편지〉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비디오 시리즈

참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Day 34~36 Day 34: p278; Day 35: p284; Day 36: p293

[제10장] 세 단계로 시작하는 새로운 영적 선교 ... 277

어떻게 개인과 단체, 교회와 협회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이 그것을 성취하리라”

Day 37

매일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라! ... 303

부흥하라! ... 306

축복 ... 308

권장 사항 ... 309

약력 ... 310

Day 38~40

▶ 부록 ... 312

부록 A: 중보기도의 약속들 / Day 38: p313

부록 B: 사람에게 접촉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부록 C: 영생에 이르는 길

부록 D: 전도를 위한 편지 요약 / Day 39: p316

부록 E: 매일 기도 목록

부록 F: 신앙을 가르치는 비디오 시리즈 / Day 40: p325

▶ 간증 ... 331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지막 경험

▶ 하나님을 경험하라 ... 337

초신자 세트 - 〈전도를 위한 편지〉들

▶ 도서 목록 ... 394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예수님 안에 거함』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 1권, 2권』

Spirit-Filled
COWORKERS
OF JESUS



서론

예수님을 통해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Spirit-Filled
COWORKERS
OF JESUS



예수님을 통해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는 어떻게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무엇인가요?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각자 성공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돈, 영향력, 권력 그리고 명예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성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성공한 삶이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1923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아홉 명이 시카고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여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후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

했습니다. 그들 중 거의 모든 사람이 파산했으며 도망다니거나 사기를 치고 감옥에 있거나 심장마비나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며 큰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2:15 한글킹 / 하나님, 돈 그리고 신앙 - 경제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행동, 헬무트 하우베일 & 게르하르트 파데라츠, 고트, 젤드 & 글라우브, Eckental 2009, p.15, 16)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170회) 혹은 “거듭남”(요 3:1~17)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요일 5:18)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 즉 인생의 성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축복들과 영생을 주십니다.

엘렌 화잇은 “이 신비[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모든 다른 일의 열쇠를 마련해 준다. 그것은 우주의 보물들 곧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들의 창고를 영혼 앞에 열어 준다”(교육, 172)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자기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자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 각자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와 한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시적으로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길도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계 14:17~20).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묘하고 독창적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의 약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참성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 ▶ **시편 1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 ▶ **여호수아 1:7~9:**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 ▶ **잠언 3:5~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 **요한복음 15:1~17:** 신약 성경은 “열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항상 함께 긴밀하게 일합니다.

성공의 실제적인 사례들

열 아홉 살이었을 때 저는 다니엘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큰 축복이 되어 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목회/선교 활동 등 진로를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은 세계 제국이었던 두 나라에서 위대한 정치가와 수상이 되었으며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그리스도인, 무슬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높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경력의 시작

다니엘과 그의 친구였던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은 젊고 건강하며 잘생겼고 지혜로웠으며 현신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왕족의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왔으며 전쟁 포로이자 죄수였습니다.

5절: 큰 왕 느브갓네살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들을 잘 돌보고 싶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온 풍성하고 호화로운 음식은 성경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

떻게 해야 했나요? 전쟁 포로들로서 그들은 전적으로 왕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심사숙고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청년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을 조용히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결정만 나와 있지만, 모든 청년들이 이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8절: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한글킹).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 이것이야말로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어떤 “세속적인 제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이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작은 팁: 여호수아 1:7~9를 공부하고 암기하세요).

요약 버전: 7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8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채우고 거기 기록된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9절: 자신만만하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린 처음 결정만 보아도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은 사람이 권하거나 지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 생애에서 내리는 결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전 생애를 결정짓습니다. 고급 여객선 “엘리자베스 여왕” 호는 그 배의 키보다 1,300배나 더 무거웠지만, 이 엄청난 배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그 키였습니다. 이러한 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비유됩니다. 결정이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정하고 필요한 단계를 밟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지속적인 협동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책 『예수님안에 거함』 중 “예수님을 통한 순종” 장을 읽어보시면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1장 8절 하단에는 “그(다니엘)는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한글킹)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나요? 그것은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거나 “원치 않습니다!” 또는 “말도 안됩니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요청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부탁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부탁하며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은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요하거나 불친절한 말투로 거절을 나타낼 때,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보여 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각을 청년수련회에서 깨달았고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였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이 방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이 문제가 본인의 양심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득할 때, 많은 경우 더욱 쉽게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적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고, 매우 공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이 상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그분이 그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따르면 환관장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왕의 명령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다음 계획을 12절에서 봅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을 직접 관리했던 환관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요청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관장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 요청은 또한 그가 그 상관에게 가진 신뢰를 보여 줍니다. 분

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열흘 후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즉 씨앗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한글킹).

왜 다니엘은 “씨앗 음식”을 요청하나요? 이 말은 어디서 왔나요? 창세기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에게 지정하신 가장 좋고 특별한 음식, 곧 채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저렴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듣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 힘, 높은 지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십니다. **17절** -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

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선지자의 은사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험 끝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나라.” 여러분은 자신을 다섯 배 혹은 열 배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요청 방법을 사용하세요.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세요. 가능하다면 혹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33에서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은 방황한 나머지 “첫사랑”(계 2:4)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고 많은 상황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마서 8:5 (독일어 성경) “인간 본성이 하라고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인간 본성이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령께서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혹은 아닌가에 따른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제가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았을 때, 저는 때때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기쁨과 확신과 힘과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렌 화잇은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노력과 신성한 힘의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부조, 509)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거나, 혹은 성서적 표현으로 열매가 많은 삶 즉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줄 이 책의 기본적인 질문들을 숙고해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가?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인간의 힘을 통하여도 아니요
많은 군대를 통하여도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약속한다”(속 4:6 독일어 성경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마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며 그 복음 사업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 곧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노소들을 통하여 그분이 마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봉사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

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나요?

획기적인 경험(자세한 내용은 3장에)

오스트리아 보젠호펜에 있는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회를 열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회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졸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그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이전에 루마니아에서 전도회를 열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졸트와 다른 학생들은 동아프리카 케냐의 키슈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졸트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있게 역사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참석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설교할 계획이었으며, 거기에 강대상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상영한 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사람은 30명 밖에 되지 않았고, 졸트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쓴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20명 그리고 셋째 날 저녁에는 10명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한 주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낙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방문을 잠그고 네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나요?”라고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네

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 6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700명이 참석하였고 1,000명까지 늘어났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3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이 이제 보이시나요? 앞의 이야기는 보기 드문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전환점을 확실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동일한 사람이 같은 교육과 같은 기별과 같은 생각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직 이것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주님은 그분의 모든 사랑과 모든 신성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 우리는 이 질문을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생수의 강 - 더 위대한 사업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8~39)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왜 생명의 강이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흘러나오나요? 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하신 일과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가요?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는 능력과 영광 가운데 보좌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왕위에 오르신 증거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과 넘치는 생명을 주실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면 인간의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을 리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힘든 시대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은 더욱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분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순복은 신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바울, 다니엘, 느헤미야, 에

스터와 같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핵심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9).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성공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복음 사업을 시작해야 했나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행 1:4,5 한글킹).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권한, 장비]을 받으리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행 1:8 한글킹)

그분이 하늘에서 마지막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22).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인간의 엄청난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왔으며 이러한 헌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현대 미디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 완성될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통신 기술이 1844년 사무엘 모르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오늘날에도 큰 역할을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만 주님께서 청중에게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인간의 능력을 통하여도 아니요 많

은 군대를 통하여도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할 것이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약속한다”(눅 4:6 독일어 성경).

이것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 끝에 노아의 때와 유사한 상황이 만연할 것입니다(마 24:37~39). 그 당시에 인류의 주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악함이었습니다(창 6:5~7). 가면을 쓰고 잘 포장되었을 뿐 인간의 사악함은 점점 더 심각해졌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예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권한, 장비]을 받으리니, 그러면...내게 증인이 되리라”(행 1:8 한글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인간적인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전기의 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력으로 불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며 시원하게도 하고 많은 기기들과 발동기, 예를 들면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TV, 전화기, 기차, 전기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움직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싹트는 데에도 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모든 것이 전기의 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근간은 성령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 방법만

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훈련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통하여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작별 인사에서 분명히 지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은 예수님을 대표하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말씀의 의미 :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분 대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은 계속 여기에 계셨습니다.

성령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엡 3:16, 17).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말씀의 의미: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오류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서 또한 나를 통하여 당신을 증거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당신께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4).

이 말은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애를 한발 한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생애에서 더 큰 존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더욱 가깝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중하며 더 의미 있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9).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시나요? 즉 충만한 삶을 원하나요? 모든 사람이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데 이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

나눔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전 3:11)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삶을 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풍성한 생애를 경험할 것입니다(요 10:10; 에 3:19; 골 2:9~10).

다른 말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풍성한 생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령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 즉 모든 다른 선물의 근원일 뿐 아니라 성령 자신도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친밀한 관계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아침마다 그분은 (가득 채워진)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시었다”(시조, 1895.11.21.).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먼저 구하셨으며 그 후에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도 아래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치료봉사, 143).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으셨고 성령의 지도 아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셨고 그분을 따르라는 초청은 잘 준비된 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두가 사랑스럽고 효과적이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성령을 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하는지는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141쪽에 실제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당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 ❷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
 - ❸ 내 주변 사람들에 관하여 성령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 ❹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아직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도록
 - ❷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구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 ❸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기를 배우도록
 - ❹ 성령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01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무후무한 계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시며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9~10)고 말씀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즐겨 그분께 데려왔기 때문에 그분은 신령받는 분이셨으며, 비록 그분은 가난하셨으나 가진 것 모두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며,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고, 누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시간을 내셨으며 밤에도 사람들이 그분에게 왔으며 영생을 발견하려는 구도자는 누구나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실제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롬 5:8).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치욕과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보다 그분이 먼저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신 것은 죄 짐 때문에, 당신과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리고 아직도 보여 주시는 사랑은 믿을 수 없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신 특성은 그분이 사랑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졌다는 것과 그 특성 자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종종 당장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죄 되고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아가페 사랑)은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고상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을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이 놀라운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하는 능력은 죄로 약화됨

죄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사랑하는 능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수록 사랑할 능력이 떨어지고, 그 이기적 본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할머니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오직 불완전한 사랑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한 사랑을 넣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행동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율법은 사랑의 영향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곧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모든 피조물이 받을 수 있게 하였

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그분의 행동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에 기초하여 기꺼이 돕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선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하며, 기꺼이 돕고자 하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함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삶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바다를 여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얘야, 배 앞을 할 수 있는 대로 멀리까지 보고 난 다음에는 뒤를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 그리고 이제는 왼쪽과 오른쪽도 그렇게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다. 이제 끝없이 높은 하늘을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다. 다음에는 바다의 깊이를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년은 매우 기쁘게 “아빠, 가장 좋은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있나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충만하신 선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 준 세 가

지 단계를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힘
2.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심
3.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림

결과:

당신은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엡 3:16~18).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완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 대한 그의 순복이 더욱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저는 자주 “아버지, 저로 당신의 사랑과 성품과 은혜로운 본성을 더욱 잘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로 기뻐던 것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당신의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저에게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게 되었습니

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둘러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을 종종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렘 31:3)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우리가 영원히 생각하게 될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 드리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기를,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묶어 두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만한 분이시고 사랑할 만한 분이시며 이해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에만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야만 내 자신을 그분께 순복하고 맡길 것입니다. 특히 서구 세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단순히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스트리아 시인 피터 로제거는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피터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벌을 줄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큰 벽시계 속에 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방으로 들어와서 종들에게 아들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을 작은 틈새를 통해 보았습니다. 종들이 나간 후에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피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벽시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벌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피터 로제거는 “그날부터 나는 나의 아버지가 심하게 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터 로제거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세상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답: 하늘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못 평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갖은 수를 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속임수의 달인을 경계하라!

사실은 사탄 자신이 악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특성을 소유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여 그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무신론과 같은 철학에 빠지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기 스스로 하는 성경 연구 없이 그냥 믿는 느긋한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른 술책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결국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11:9). 사탄은 겁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고 힘들며 기쁨이 없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요한은 요일 5:3에서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는 부자들에게는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길으로는 그럴듯한 논리로 접근합니다(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빌 3:4). 사탄은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나치게 까다로운 트집쟁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시지만 그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되갚아 주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이 든 존재인 뿐 별로 심각하게 여길 분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불러오거나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계속 새로운 것을 꾸며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성품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로저 모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신령 송배자로 있을 때 한 강신술 제사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악마들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들은 아주 섬세한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과 형상들을 획 지나가게 함으로 사람들은 이를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믿는다.’”(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필요할 때, 리뷰 앤드 헤럴드 출판협회, 1995년, 70쪽) .

사탄과 그의 악마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 되게 혹은 부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유혹의 수단

사탄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때에 경험할 미혹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무도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탄은 특별히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대 소년 소녀들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무엇이든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십대들이 혼자 있을 때, 대부분이 흥미를 갖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화업계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섹스와 폭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십대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인들도 이 주제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사탄의 미혹에 노출될 위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자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자유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유 안에서만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 곧 천사들, 다른 행성의 주민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반대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는 우리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한 사람은 스스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불행히도 다른 사

람들 또한 그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든 속고,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거나, 다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만 그에게 물으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면 성경에 따라 죄의 “값”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롬 6:23).

마지막 때에 신실한 사람은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계 22:12). 그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대신 죄의 형벌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사 53:5).

하나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대담해져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가 사는 동안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이 부정적인 결과들은 분간하거나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고통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가 루시퍼 안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지금은 악마 혹은 사탄이라 불리우는 루시퍼는 확실히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얼마의 자유를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양이 차면 - 제 생각에는 거의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 그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고통을 지상에서 끝내실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온 우주에는 다시 연합과 조화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엘렌 화잇의 대쟁투 제29장 “죄악의 시작”에 있음)

부당함으로 인한 고통 - 잘못을 행함

죄로 인하여 많은 부당함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자주 겪는 일이므로 부당함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당함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직접 개입하실 뿐입니다. 뭔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행동해야만 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예: 레위기 16장

고라의 반역에 대한 형벌). 마지막 때에서야 신실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니라”고 증거 할 것입니다(시 103:6).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못 행하는 것’과 같은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행하기 보다는 부당함 때문에 고통받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행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주 “부모의 죄”는 그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Day
05

구원하는 사랑에 반응하고 그 가운데 거하기

놀라운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히 3:15).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

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고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며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와 우리의 성품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소망, 322~323).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부조, 459). 우리가 성령의 감화력 아래,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매일 읽고 명상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한 채로 죄를 범하면 요한일서 2:1이 적용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바울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생명의 성령의 법[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영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170번, 바울의 편지에서 97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3:5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매일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에 결코 알지 못하였던 삶의 변화와 삶의 질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며 끝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왕도로 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일 우리를 축복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험을 견뎌

우리 대부분은 누가복음 15:11~32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하루는 작은아들이 그의 아버지(하나님을 상징함)에게 자기는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의 규율(하나님의 계명)이 그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 자기가 아직 받을 수 없는 유산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의 몫을 줍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아들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난잡한 파티와 문란한 여자들에게 썼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의 친구들도 곧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있는 지역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그는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돼지를 돌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히 고했지만 돼지 먹이를 먹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모든 일꾼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나는 가서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말하리라(눅 15:18~19)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을 뉘우칠 때, 성경에서 이것을 “회개”와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이미 자기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자신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동정심이 가득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뛰어가서 상당히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날지라도 목을 감싸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아들이 모든 잘못을 미처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잔치를 열라고 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분명 이전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하나님께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병들거나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언제 중요한가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집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위기가 그를 정신 차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고난의 생애”를 통하여 오만한 그의 태도가 현실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절친들이 자신보다는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등을 돌렸을 때조차 항상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아버지가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들인 후에는 아들이 결코 다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서야 그 아들은 이 사랑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전에는 그 아들이 항상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의 표시를 감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었을 때,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생애를 그분께 의탁하였을 때, 나는 그분의 사랑의 온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케 하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한 자들만이 결국 그들의 유업 곧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함

만일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더 많은 사랑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전 존재를 드리오니 나의 모든 감정들과 저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부디 아버지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저로 이 일에 뜻을 두고 행하도록 제 안에서 역사하소서. 저는 또한 제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로 주위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37, 39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진노 그리고 심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교육하실 것입니다.

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스럽고 능력 있고 독립적인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잘 배우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처음부터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자 했고 자기의 “스승” 엘리에게 순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불쾌한 교육 방법이 필요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태도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삼상 2:18, 26). 그와 대조되게 엘리의 아들들은 불순종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삼상 2:25). 그리하여 그들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성물을 더럽히는 제사장 봉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진노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분노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인간의 분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일반적으로 죄와 죄 된 행습을 향한 것인데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롬 1:18).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분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이 일을 할 수 있으십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어”(시 7:11)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 14).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 시대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할 것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Day
06

폭풍우 속에서 도우심: 하나님의 율법 - 사랑의 율법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확실했던 표준은 잊혀졌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삶을 놓아버리고 정신적으로 병들거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마티어스 클라우디어스라는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닳을 내릴 수 있는 무언가 견고한 것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의지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 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규율이 무엇인지 알까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할 뿐 아니라(시 99:4) 또한 그분의 규율은 비교할 데 없으며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시 111:7~8).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시 19:7).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시 119:7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시 119:92). 한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며 다른 한편으로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새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또 믿는 우리에게 그들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 주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타내신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하고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롬 5:5; 또한 엡 3:16~17을 보라). 즉 우리는 성령으로 채움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엘렌 화잇은 이것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짧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

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행적, 551). “그대들은 사도 시대에 그들 모두를 하나로 만든 사랑의 침례를 매일 필요로 한다”(교련, 175). 매일 성령을 구하고 받는 일은 그 즉시 사랑의 침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입는다면, 생애를 것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백 가지 중 아흔 아홉은 해결될 것이다”(4증언, 348).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

언뜻 보기에 이 문장은 좀 과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13:1~3을 볼 때, 우리는 곧 그 문장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본질이 빠짐

사랑 없는	의무는	성급합니다.
사랑 없는	책임은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엄격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비판적입니다.
사랑 없는	교육은	완고합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어리석습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이중적입니다.
사랑 없는	명령은	옹졸합니다.
사랑 없는	전문 지식은	독단적입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교만합니다.
사랑 없는	재산은	인색함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 작자 미상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우리의 행동과 존재는 기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좋은 결혼에 비유합니다(사 54:5; 엡 5:32).

이 땅에서 좋은 결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부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얘기하고 서로 애정을 주고받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남녀 사이의 결혼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속주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최대의 안정과 도움과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만하며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나를 위한 시간을 내십니다. 나는 그분과 교제하는데 어떤 기술적 도움도 필요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서 내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호원들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천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빨리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거주지 변경”을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치루셨으며 이미 나를 위하여 놀라운 저택을 마련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다치게 할 때, 나를 위해 우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새 예루살렘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나를 그분의 팔에 안아 주실 때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은 함께 함

당신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훔 1:2에서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분을 질투하게 만드는가입니다. 그 답은 에스겔 16장에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8절과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예루살렘 = 하나님의 백성].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지를 봅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 간음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습니다. 그분의 질투와 진노의 동기는 절대적으로 고상하며 온전히 이타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신들을 좇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해가 될 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신은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 내 차, 내 집, 내 직업, 내 취미와 같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잃게 된다면 그분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적 결혼을 깨끗이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만일 한 사람이 결혼 1년 후에 자기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나는 일주일에 이들은 다른 곳에 있게 될 거야.” 당연히 그의 아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같은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십니다(예를 들면 침례 서약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별은 아주 명백합니다.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보통 굶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직한 생애를 살면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돕기를 잘하면, 그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적인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든지 부정직한 자에게든지 비를 내리시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일 뿐입니다.

더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도록 권고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축복들 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순복하며 매일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까지 함께 받을 것인지 각 사람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랑은 항상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관계가 적절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사랑스러우시며 충실한 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엡 3:19) 가운데 사는 삶은 나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거나 예수님과 관계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동시에 나는 그분의 보살핌과 사랑,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축복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 다른 모든 축복을 함께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즉위식 선물인 성령
- ▶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새로운 삶
- ▶ 우리의 모든 죄책에 대한 용서
- ▶ 성령의 열매 안에서 경험하며 자라남: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 갈라디아서 5:22 –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자라남
- ▶ 하나님이 지도해 주심
- ▶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받음
- ▶ 구원에 대한 확신
- ▶ 우리와 동행하며 돕는 천사
- ▶ 영원한 생명을 받음

믿는 자는 일반적인 그리고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골 2:9~10). 우리가 이 특별한 축복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

리 생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충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더욱더 알고 이해하는 생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공부를 에베소서 3:16~19에 있는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 기도 ◆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 ❷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생길 수 있나요?
- ❸ 일반적인 축복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❹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엡 3:17).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위하여
- ❷ 깨끗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위하여
- ❸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 ❹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

봉사, 도움, 나눔, 축복!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자원함이란 -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시대의 정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중 어느 시각으로 “봉사”라는 주제를 바라보나요? “일반인”은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 주길 바랍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 23:4~7).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부분

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도우면 도움이 됨

어린이들은 부모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 “도움”이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지라도 부모가 그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왜 좋은 일인가요? 그 “도움”과 “봉사”를 통하여 그 아이의 실질적이며 정신적인 능력들이 자라납니다. 흔히 그 첫 결과물은 좀 별로일지라도 그 아이는 자신이 해 낼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더 자주 “도움”수록 그 결과들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의 부모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날이 훌쩍 다가올 것입니다. 그 아이는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많은 다른 영역에서 도울 수 있도록 허락받게 되면 그는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그 아이가 “돕”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이는 좌절했을 것이며 삶에 적응하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 –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 20:28).

예수께서는 왜 그분의 고난의 침례 전에 세족예식을 행하셨나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곧 이타적인 섬김의 생애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영원히 새겨 주시려고 한 예증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반복하셨다”(소망, 642).

우리도 아직 세족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 100:2). 언뜻 보기에 섬김과 기쁨은 서로 맞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자기가 “돕고” “섬김” 수 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봉사가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아십니다. 엘렌 화이트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자선 사업이 모든 면에서 두 배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의 경륜 안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제정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자아부정과 자선심을 계발할 수 있는 이 큰 사업의 한 부분을 맡아 행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 사람이 자선의 복된 결과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그분의 동역자로 참가시키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언급합니다(보감, 360~361).

위의 인용문에는 어떤 놀라운 생각이 담겨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읽어 봅시다.

- ▶ 모든 형태의 선행은 두 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
- ▶ 그 과정에서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자아 부정을 연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보임으로 성품을 고상하게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함을 경험합니다.
- ▶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순수한 우정으로 발전됩니다.
- ▶ 또한 하나님의 참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 안에 깊은 즐거움이 솟아나도록 합니다.

볼리비아에서 보내온 경험담

나눔으로 받은 두 배의 축복 - 이 책(『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단계』)을 읽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는지! 매일 아침 헌신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느꼈던 것을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준비하고 전함을 통하여 저는 목사님처럼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항상 이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D. K. 남미 볼리비아).

섬김, 나눔, 도움!

“일반적인” 사람뿐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봉사하기를 싫

어하므로 보통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선 봉사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태도의 변화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위한 준비(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봉사의 의미(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본보기가 되며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통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서 하는 교인들의 봉사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마태복음 20장 28절 외에도, 섬김과 베풀기와 도움은 축복받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여러 다른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잠 11:24~2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 19:17)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6~7). 6~15절을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 봉사가 주제인 엘렌 화잇의 두 가지 인용문이 있습니다.

“봉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유일한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다”(교육 264).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치료 149).

정지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과 같다

왜 많은 교인이 어떠한 영적 성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이 실제로 약해질까요? 왜 많은 교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또한 많은 교인이 왜 첫사랑의 뜨거움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단 한 가지의 대답만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등한히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모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강한 사랑

의 관계는 이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동기를 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활동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려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참자녀는 그분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인해 어떤 일이든 즐겨 행합니다. 동시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동기도 부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직무, 혹은 여러 가지 직무를 맡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봉사 사업에 우리를 쓰시도록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의 직무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가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애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매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즐기며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 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모으려 하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 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실물, 259).

Day
08

봉사의 법칙 - 필수적인 문제

우리는 종종 위 제목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은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자’(눅 22:27)로 이 세상에 오셨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히 1:14)을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눅 6:38)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못지않게 명백하게 천연계에도 쓰여져 있는 교훈이다”(교육, 103. 2~3).

위 설명과 더불어 봉사의 법칙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공소에서 목수가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일꾼은 회사를 위해 “봉사하지만” 그 또한 “보상을 받습니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 목수와 회사 사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 것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그 일꾼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목수에게 돈으로써 “봉사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회사 역시 가구로 “보상”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꾼은 재정적으로 보상받을 뿐 아니라 일을 잘했다는 만족과 기쁨 또한 경험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일꾼은 가능하면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골로새서 3:17은 특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적용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 제작에 대한 그 일꾼의 지식은 계속 자라갈 것이며 그의 능력 또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사의 경영진 역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제작된 가구를 판매할 때 수입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또한 가구 제작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며 판매 기술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 - 기쁨 혹은 부담?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라는 단어를 즐거움보다는 부담이라는 단어와 연관 짓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이 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은 전적으로 헌신한 영혼에게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지도함을 받으려고 온전히 자신을 순복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은 불쾌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1보감, 357).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태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롬 8:5). 성령을 계속하여 받음으로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영구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4).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게 되며 봉사로 인한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다음의 두 가지 필수 단계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 ▶ 매일 아침 믿음으로 (약속과 함께라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채우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 ▶ 그대의 전 생애를 그분의 사용에 맡깁니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봉사 사업에 우리를 쓰시는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뿐 아니라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독서 권장: 정로의 계단 제9장: “사업과 생애”)

봉사 - 예수님의 멍에 아래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멍에”라는 말을 정의해 봅시다. 멍에는 무엇인가요? 멍에는 두 황소를 연결하여 수레나 쟁기 앞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긴밀하게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가 용기 얻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마차를 끌게 됩니다. 그분은 연합된 봉사를 위하여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분은 봉사의 대가이시므로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는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 성경절은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책임을 지고, 그 일의 선두에서 지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지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와 증인

모리스 벤든 목사님은 봉사와 증인 사이의 다른 점을 설명하십니다.

“봉사란 말은 우리의 행동을 묘사하며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는 말과 관련이 있다. 타인을 위한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우리가 삶에서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발견한 멋진 친구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이다). - PPPA 2005년)

특별 봉사: 증거함

마가복음 5:1~20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악귀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가 자유한 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붙잡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19절). 그 치유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였나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20절).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마태복음 8:28~34에 따르면 거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가볼리 전 지방을 두루 다니며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선포하며 어떻게 그분이 그들을 악귀들에게서 자유케 하셨는지 설명하였다.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분이 계신 곳에 머물렀던 것보다,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구세주와 더욱 가까워진다”(소망, 339).

치유된 그 두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속담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셨던 일을 가족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그 온 지방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나요? 우리는 적당한 답을 『정로의 계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 하고 그의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진대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정로, 78).

그렇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준 기쁨이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독일 속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 천사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천사들도 이 봉사 사업에 참여합니다. “전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조력자이다. 그들은 천사들의 협력자들이요, 아니 그보다도 그들은 천사들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사람의 통로인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 말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한다. 그리하여 일꾼들은 천사들과 협력함으로 그들의 교육과 경험에 유익을 얻는다. 교육의 방법으로서, 어떤 ‘대학 수업’이 이와 필적할 수 있겠는가?”(교육, 271)

한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누가 전도회를 인도할 때나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Day
09

봉사는 재림을 위한 우리의 준비에 아주 중요한 부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재림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그분께서 오시는 광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재림의 징조들을 알려 주셨지만 그 일은 밤의 도둑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마 24:43~44).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비유들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을 살펴봅시다.

청지기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마 24:45~51)

한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동안 다른 종업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업가가 돌아와서 청지기가 부지런히 자기 임무를 완수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이 믿음직한 청지기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책임감이 없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여 일은 제쳐 두고 수많은 잔치와 술자리를 열었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직무를 수행함으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처녀(마 25:1~13)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다섯 명은 슬기로워서 등에 넣을 여분의 기름을 챙겼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미련하여 여분의 양을 챙기지 않았었습니다. 신랑의 도착 시간이 모두가 예상했

던 것보다 지체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피곤하여 잠들었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갑자기 도착하였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예식장으로 갔지만, 나머지는 기름을 얻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닫힌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더 이상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진정으로 준비되 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보여 주십니다. “여분의 양을 챙기지 않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위탁받은 돈의 관리(마태 25:14~30)

한 사업가가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그동안 자기 재산을 맡기기 위해 직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각 직원들은 그들이 맡은 재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두 직원은 그 재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했지만, 한 직원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가 돌아왔을 때, 두 명의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었으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함께 우리의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들까지 활용해야 함을 보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엘렌 화잇의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

회에 맡기신 재능은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과 축복들을 나타낸다. ...이 재능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과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실물, 327).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목자가 양을 염소와 구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분은 양을 오른쪽에 놓으십니다. 그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머지는 왼쪽에 놓으십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일만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선한 행동이 ‘본성’이 되어 선을 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 준비의 조건 가운데 성령 충만한 봉사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이는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며 봉사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거나 병원이나 감옥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의 일을 행할 때, 정확히 예수님께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요! (2019년 3기 과정공부 중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 9).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들에게(위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순복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려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구원의 열매 곧 그 결과입니다.

또 로마서 8:24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하나님께

서는 우리를 당신께 묶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연결을 스스로 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재림 바로 전에 누가 하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나 혹은 아닌가를 알아보는 “조사”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마 22:1~14을 보라).

봉사로 이룰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고 헌신적인 제자들은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기쁨과 힘, 실제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능력이 증가하며 그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수준까지 긍정적으로 계발됩니다. 이기심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매력적인 생활방식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내 안에 이루신 일을 증언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나의 봉사를 통해 사람들은 더 개선되고 심을 누림으로써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서 경험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하게 되고 나의 봉사 기회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시들거나 믿음을 잃는 일을 막아 줍니다. 그리고 봉사를 받는 사람이 복음에 마음을 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여러 의문에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큰 안정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봉사, 나눔, 도움, 축복이 포함된 모든 일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달란트(나눔, 봉사, 도움)가 얼마

나 큰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원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시며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고후 8:12).

Day
10

하나님께는 우리의 자원함이 중요 - 그분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기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죄 된 인간 본성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가장 현명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일입니다. 예수

께서는 요한복음 10:10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최선의 길, 곧 우리의 성격과 현실에 적합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자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정신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자발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고후 4:16) 자발적인 심령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허락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이가 자원하여 순종할 때 기뻐하는 부모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원함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원함은 열려있는 내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겸손하며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을 가진 태도입니다.

저는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 부족했던 상황에 대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멜와이즈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40년 비엔나는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엔나 대학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서 막 아기를 낳은 여섯 명의 산모 중 한 명은 사

망했습니다. 1840년도에 세멜와이즈라는 한 젊은 의사가 그 병동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전에 부검을 한 의사가 검사를 한 산모들만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시체를 검사한 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멜와이즈는 처음으로 모든 부검 후에는 손을 씻을 것이며 나중에는 모든 환자를 검사한 후에도 손을 씻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망률이 14배나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산모가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과 의사들은 이 성과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이 “의미없는” 손씻는 일에 대항하여 폭풍같은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세멜와이즈 의사는 재계약에 실패했으며 그가 설치했던 입원실의 싱크대는 뜯겨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산모의 사망률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멜와이즈 의사는 비엔나를 떠나 부다페스트로 가서 같은 의료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

세멜와이즈 의사의 경험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교만과 편견 때문에 매우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리석음은 지혜의 반대입니다. 현대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적 능력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지혜라는 말은 다소 뒤로 밀려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잠언 8장과 9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시편 111:10에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

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 성경절은 신성한 지혜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어도 위 성경절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요! 로마서 1:22에서 그 정곡을 찌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소위 철학이라고도 불리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작품들처럼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삶의 의미, 세계의 본질, 지구상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고전 1:19,20 한글킹). 또한 이 성경절이 “율법 선생들”을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신학자 혹은 목회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이 오직 인간의 지성에 근거하여 가르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혹은

성령의 인도 없이 오직 인간의 이해만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들이 발견하여 전하는 내용 또한 아마도 의문스러운 성질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종교적인 직업을 가졌던지 아니든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며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게 영적 영역에 나타나나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자신도 이 원칙에 따라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이 자원하는 정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이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베뢰아에 있는 신자들은 이런 종류의 자원함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열린 심령으로 바울에게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11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자원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

정 정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8:5은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날 우리는 여러 계획들로 분주합니다. 일반인과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신에 노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만과 편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통찰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모든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열린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2:2(독일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말고 오직 너희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면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지혜롭고 자발적이 됨

우리를 지혜롭고 봉사에 자발적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문맥에서 저는 사도행전 6:3을 인용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 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의 첫 선거, 곧 집사들의 선출이었습니다. 그 선출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어야 하였습니 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온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면, 성경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기도한 후에 즉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도 바로 직후에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계속할 때, 끝에 가서 주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저를 도우셨음에 놀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이 어떤 종류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생을 포함하여 항상 나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즐겨 그분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누군가 순수한 동기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맡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 40:8).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이 자원함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아침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요청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은 성령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설교는 새로운 자유와 열정을 얻었습니다. 우리 팀과 교인들에 대한 나의 리더십은 차원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우연(한 저자는 동시성이라 부름)한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의 낮과 밤, 나의 “갑자기 닥친” 집회들, 이메일 그리고 대화를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나의 깨어 있는 시간들을 (나의 잠자는 시간들까지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나는 이제 그분을 나의 개인적이며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은 미시간주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대총회 기도 사역, 2018. 4. 22, 기도 편지 No.143에서 발췌).

우리에게는 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고전 4:16). 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다고 해서 오늘도 역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지키려고 자원하며 또한 계속 자원하게 되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취하사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따르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므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요한복음 5장 14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아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한글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 청년, 남성 혹은 여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자유를 줌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뜻(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을 따라야

할 때 자유롭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이나 반대편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자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를 때 자유와 행복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을 때, 사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일합니다. 모든 중독자가 이것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사탄의 왕국을 떠나고자 할 때, 사탄이 쉽게 자신들을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날 때 분명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자유가 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꺼이 하면 결실을 맺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었든 늙었든, 교육을 받았든, 교육을 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작은 빵 다섯 덩어리로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의 몫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모든 참석자의 배고픔이 충족되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5,000명의 남성과 그와 동일한 수의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그것으로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예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말하자면 씨앗이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수확은 언제나 씨앗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예는 독일에서 1994년에 겪은 경험입니다.

한 성도가 100만 명이 사는 우즈베키스탄의 한 무교 지역에 교회를 짓는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1만 DM(전 독일 화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1년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기부한 1만 DM은 자기가 쓴 책의 인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의 책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제2쇄를 출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1만 DM 수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 논픽션이 2쇄를 찍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

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만 DM을 돌려주셨습니다. 전화 통화 끝에 그 형제는 “선교를 위해 돈이 또 필요하면 내게 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셨네요. 사실 저는 목사님께 수표를 보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수표를 선교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쁜 목소리로 자신의 책 세 번째 판이 인쇄되었고 인쇄소로부터 방금 수표를 다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에게 우리의 미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몇 주 후에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생각해 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지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수표를 보내겠습니다.” 수표는 다음날 도착했고 2만 5천 DM이었습니다! 몇 주 후 우연히 어떤 행사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목사님이 전화 주시기도 전에 제가 이미 2만 5천 DM의 수표를 써 났던 거 아세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그 형제와 이 선교 프로젝트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서두에 언급된 본문은 이 형제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섬기고 베풀고 돕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봉사하고 베풀고 돕는 동시에 저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매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① 하나님께서는 섬김, 도움, 베푸는 것과 어떤 기발한 생각을 연결 하셨나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②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③ 이성/지성과 지혜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④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결과 기쁨으로 남을 섬길 수 있게 되도록
 - ② 누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보여 주시도록
 - ③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만과 계산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 ④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인 내를 위해

누가 일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누가 일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뤄야 할 중요한 질문: 나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나요?



주목할 만한 성경 사례: 모세

처음에 모세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40살 때 모세는 자신이 가진 뛰어난 능력으로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쁜 결과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며 신성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가 사십 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김지라.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집트인을 보복하여 그를 처죽하였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도망쳤고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이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완전히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책에 쓰여 있는 깨달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순히 이집트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저지했습니다. 모세의 드러난 죄 즉 태만의 죄가 있었습니다(출 4:24~26; 부조 255~256). 이 한 가지 죄악을 먼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천사들이 그를 보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 앞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와 개인적으로도 대화하시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

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추천 도서: 부조와 선지자, 22장: 모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주요 성경절은 에베소서 2:10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독일어 성경).

이것은 두 사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역, 내 안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마 11:28).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예수께 와서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초청과 약속을 받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 예수님은 우리와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갖는 믿음의 두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마거: 가이스테스, 101쪽).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을 요청하고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바퀴가 흐르는 물 아래 있어야 움직이듯이 우리는 성령의 강에 잠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생명을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담는 그릇의 역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는 끈이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누가복음 11:5~13 참조).

다음 단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순복의 삶입니다. 이 단계에 대한 최고의 명확한 설명은 『시대의 소망』 676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 ▶ 그분의 봉사 사업에 거리낌 없이 순복하는 삶

다음 구절은 성령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이 기별을 능력으로 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리뷰, 1902. 6. 10.). 순복에 관한 또 다

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는 그분의 손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가 신성한 지혜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신성한 사명이 그에게 맡겨질 것이다...”(사도행적, 283).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령을 요청하고 받는 것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그분의 봉사 사업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 곧 매일 아침 이 두 가지 영적인 단계를 밟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에 근거하여 받게 된 나의 새로운 삶이 계속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역 –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이러한 새로운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일 즉 나를 통한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10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선행의 삶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독일어 성경).

이 선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준비된 사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합적인 계획 안에 나를 위한 계획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구체적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리는 믿음 속에서 성장하며 실천적, 영적, 정신적 능력이 발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면서 기쁨과 힘을 경험하고 동시에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준비되는 것입니다(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 264쪽에 있음).

느헤미야와 온 백성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느 8:10).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는데, 이는 백성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일을 단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해 놓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ay 12

하나님께서 위대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성한 도움을 주셨다. ...그분은 모든 위협에

서 도와주도록 성령을 주셨다”(오늘 나의 생애, 37).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미래를 매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즉 우리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최선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37~39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여기서 첫 번째 사업, 곧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갈증과 욕망을 해결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생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생수를 몇 배로 늘려서 하나의 샘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 있는 물의 강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로 우리가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임무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구 끝까지 미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

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시며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봉사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모든 자에게는 무수한 결과를 얻기 위한 힘이 주어진다”(7증언, 30).

이렇게 하는 그 누구든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더 큰 일들”이라는 표현은 공간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설명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 나를 통해 이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인 느헤미야를 다시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나요?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건축 전문가도 아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2:12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엘렌 화잇 주석:

“...기도하는 동안, 그 계획은 그의[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었다...”(남부 파수꾼, 1904. 3. 29.).

예루살렘에서의 일은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미리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느헤미야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엘렌 화잇이 증언보감 제3권, 341쪽에 기록한 “우리가 그분께 도구를 제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방해꾼 아니면 조력자?

느헤미야 외에 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성과 간절한 정신을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크게 방해할 수도 크게 진전시킬 수도 있었다. 그들이 초반에 협력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남부 파수꾼, 1904. 4.5.).

온전한 마음

느헤미야는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사람의 본보기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역대하 16:9(한글킹)

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 이니이다.”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순복과 성령 충만한 삶(소망, 676)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힘차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활기찬 관계를 맺을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준비하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기초 위에서 두 번째 사업 즉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삶(요한 3:1~17)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만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예: 아사왕

아사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는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앗수르 왕 벤 하닷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자기 고집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나니를 보내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아사에게 말했을 때, 왕은 분노하여 예언자를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후 아사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원들을 믿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인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움을 철회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사는 35년 동안 충실한 왕으로 하나님과 남다른 경험을 하였지만 마지막 6년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참조: 왕상 15:8~24와 역대하 14~16장)

성경은 사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천하를 찢는 자라...”(계 12:9).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이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재림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예를 찾고자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한발 한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이는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제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성령께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존 하비 켈로그 박사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매우 재능 있는 의사였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수년간 이 재능 있는 사람은 요양원을 짓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틀크릭 요양원이 전소하고 켈로그의 지도 하에 지어진 새 요양원이 파산 선고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교

회에서 의사로 일하는 동안 이상한 신학적 견해를 갖게 되었고, 처음에는 말로 이를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교회 신도를 잘못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켈로그는 잘못된 가르침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거부했던 책을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켈로그는 자신의 비용으로 책을 인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외부인들을 위해 인쇄해 온 우리 교단 출판사 리뷰 앤드 헤럴드에 5,000부를 주문했습니다. 출판사는 이에 동의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출판사가 끔찍한 화재로 전소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켈로그는 원고를 외부 출판사로 보내서 인쇄하도록 했습니다. 켈로그가 마침내 스스로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루이스 월튼의 “오메가”, 리뷰지 참고). 이 경우 우리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었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Day
13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별개이다

이와 관련하여 르로이 프롬의 인용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별

개의 것이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과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풍부하게 거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 획기적인 일을 하시기 전에는 인간과 함께 획기적인 일을 하실 수 없다” (보혜사의 오심, 리뷰 1928년, 119쪽).

켈로그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심지어 나의 직책이 가진 권한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의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번째 사업에서 일하실 수 있는지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교단 내 저자들에 대해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작품은 천사들도 동의하며 독자들에게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작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지 않을 때 쓴 작품을 읽게 되면 천사들은 슬픔 가운데서 고통을 느낀다. 천사들은 돌아서게 되고 독자들에게 감명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좋은 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따뜻한 감화력이 부족하다”(PH 016, 29).

기독교 서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해야 하며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봉사 사업에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품의 놀라운 내용에 감동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글을 쓴 작가의 영적인 자세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작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글을 쓸 때, 하나님은 같은 성령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고 독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모든 분야에도 해당되는데, 목사, 교육, 선교 프로젝트, 교회 지도력, 가정 생활, 자녀 교육과 같은 분야에도 해당됩니다.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일하는, 일을 완벽하게 만드는 하늘 지성의 능력이다”(봉사, 260).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과 살아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그분의 귀중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완전한 순복 가운데 살지 않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큰 축복을 잃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설교는 결코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1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모든 명령과 약속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를 감명시키지 않는 한, 어떤 영혼도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도,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협력 없이는 사람을 빛의 통로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과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렌 화잇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성령의 부으심의 정도에 비례한다”(소망, 330). 그리고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서 보다 큰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신다”(실물 146) (사도행전, 283~284를 더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영혼을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승리를 얻을 것이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79).

불행하게도 예전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순복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멋

진 배우자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한 후 원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로 연합되어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예수님 안에 거함』에서 “예수님께 순복함” 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인간의 가능성을 능가함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예레미야 33:3).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 - 위대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을 몇 번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은 특정 분야에서 나의 능력과 기량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는 기쁨과 큰 놀라움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협력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두 인용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홀로 일하도록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1888 원고, 141).

“주께 봉사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고, 다함이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한 능력이 주어진다”(7증언, 30쪽).

지속적인 기도로 연결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살아가려면 그분과의 지속적인 기도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비하신 그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추가 약속: 요 14:12~14; 15:16; 18:19; 3:22) 주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성한 충고

“누구도 주님의 일을 더 빨리 진척시키려는 노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게 하라. 인간의 힘은 사업을 앞당길 수 없다. 이것과 함께 하늘 지성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바울은 심을 수 있고 아볼로는 물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만드신다. 단순함과 온유함 가운데서 인간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한 대리자들과 협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이심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한다”(7증언, 298).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나요?

필립 브룩스는 “행군했던 모든 군대를 통틀어, 건조된 모든 해군 함

대를 통틀어, 모든 의회 회기를 통틀어 그리고 역사상 통치한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 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셨던 나사렛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0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신성한 영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통해 믿기 어려운 정도로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19~20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엄청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

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롬 15:18~19)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엘렌 화잇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모든 것의 열쇠를 제공한다. 그것은 영혼에게 우주의 보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 준다”(교육, 172)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며 하찮은 것이든 위대한 것이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자세한 내용은 예수 안에서 거함-“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장 참조)

존 웨슬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직 99%만 헌신한 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 100%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Joseph Kidder, A Guide to a Spiritual Life, Andrews University, PPP 슬라이드 14) .

스가랴 4:6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대의 힘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성령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스가랴 4장 6절 독일어 성경).

어린이와 청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메리 존스는 1784년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헌신적인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운 후 메리는 자기만의 성경책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경은 너무 비쌌고 책도 많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마다 메리는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한 부유한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성경책을 갖기 위하여 그녀는 일할 나이가 되자마자 잡다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은 나무를 모아서 팔고 다른 날은 아이를 돌보는 식이었습니다.

메리가 충분한 돈을 모으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발라 지역의 한 목사님에게 성경을 사기 위하여 랑피항곶에서 발라까지 험한 산길 42km를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토마스 찰스 목사는 메리에게 자신은 성경 두 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는 메리에게 성경 한 권을 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소 짜증이 난 목사는 그녀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목사에게 성경책을 사기 위해 6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누그러져 성경 중 하나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

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감명을 받아 다음 종교 서적 학회 모임에서 메리와 있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웨일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성경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곧 그의 동료 로버트 윌리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 결과 최초의 세계 성서 공회(영국·해외 성서 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모본을 따라 140개 이상의 성서 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소박하고 독실한 소녀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러므로 다음 구절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실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실지도 모른다(읽기 권장: 에스테르 4:14~16 또한 기독교 봉사, 26장: 성공 확신)

나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2011/2012년 그 당시 저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몰랐던 그 일을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 삶에 점점 더 스며들게 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경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승리와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이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사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은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광이 네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대의 빛이 빛나도록 하라. ... 그대의 빛이 빛나게 하라. 그리스도의 목사여, 그대의 빛이 어떤 방식으로 빛나게 할런지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하늘로 번쩍이면, 그것은 옳게 비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려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도록 이끌면, 그대는 전혀 잠잠히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니. 이는 그대의 빛이 잘못된 방식으로 빛나기 때문이다”(4증언, 400).

실제로 일어났던 일 - 부흥 서적의 확산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부흥을 위한 서적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서적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제가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로 허락되었고 여전히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가지의 다른 자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주제로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관련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저는 모든 교회 신도들에게 설교문 인쇄문을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사본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저명한 신학자 두 명이 제 설교 복사본을 받아갔습니다. 2012년 5월 1일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을 위한 선물이었고 그 후에는 목사님을 통해 모든 독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영적 서적을 여러 권 받았지만,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에 나오는 주제는 특별합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세밀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방법의 윤곽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 자기 성찰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두 신학자 모두 그 내용에 감명을 받아 설교를 책으로 출판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설교를 모은 것으로는 작은 소책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출판사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여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얼마 후 취리히에 있는 독일-슈바이젠 베레이니궁(DSV - 독일·스위스 합회)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설교를 책자로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스위스 합회는 모든 세부 사항(수정, 디자인, 사진, 견적 인쇄 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2012년 10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첫 독일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스위스 합회는 출판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다른 합회와 연합회, 오스트리아 합회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독일 바덴 뷔르 템베르크기슈 합회와 오스트리아 연합회도 참여했으며, 따라서 9,200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10,000부 인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쇄기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여 13,500부를 인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약속에 의지하였습니다.

놀랍게도 13,500부가 곧 사라졌고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인쇄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이후 독일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제8판까지 총 4만 5,0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이 기별에 감동한 많은 교회 성도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에베소서 2:10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다양하고 대단한 배부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별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세미나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내외 교회들의 초청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

니다(금요일 저녁에는 체험 나눔, 안식일에는 설교, 오후에는 2시간 강의인 총 4시간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형제들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설교자가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주제를 사용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과는 무관하게 다음의 일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디오가 녹화되고, 오디오북이 녹음되었으며, 아마존을 통해 전자 책자가 배포되었고,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독일어 및 영어 웹사이트를 개발한 한 부부와 저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한국어도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서 읽을 수 있음). 소책자는 온라인으로 읽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8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 책의 후속편인 『예수님 안에 거함』은 거의 34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도합 130만 부가 인쇄되었고 거기다 143개국(2020년 8월 기준)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수의 온라인판까지 있습니다.

많은 독자가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간증> 약 160개 간증 수록에서 그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500개 이상의 구두 및 서면 간증 덕분에 이 책에 더 깊은 깨달음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들을 읽으면 『개인 부흥을 위한 단계』 책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 수 있습니다.

- ▶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성령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자신의 영적 상태와 관련하여 올바

른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갖고 매력적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단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 ▶ 우리가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를 하게 되면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 ▶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큰 기쁨으로 인해 증인이 되었고, 이 책자를 나눠 주면서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기적을 보며 오직 경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 100:1~2).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게 하시고 여러 상황을 조정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이 이 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 번역, 교정, 기도, 자금 조달, 표지 디자인, 인쇄 준비, 인쇄, 연결 설정, 배포 지원, 간증 제출, 웹사이트 디자인 등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팀으로 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각자가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연결될 수 있었던 여러

자매님과 형제님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은 단기적으로, 또 어떤 일들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이며 기쁨으로 그분을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데, 이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하나님은 종종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중국 내륙 선교를 완성하게 하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훌륭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 그가 선교 사업에 끼친 큰 영향력을 칭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살펴보시며 그분의 사역을 행할 만큼 연약한 사람을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저를 찾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연약하다. 그 정도면 되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만하게 행한 모든 행실로부터 저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완전히 순복하여 겸손한 마음을 당신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작은 결과만을 기대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흥과 개혁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체험

오사카/일본의 찬양 보고:

지금 바로 금식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리 A: 저희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100일 기도에 참여하기로 했고, 특히 5월에 성령을 위해 금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즉시 주님은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알아보던 부부를 슈퍼마켓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당장

성경 공부를 하기 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고 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 중 한 명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출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은 교회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2020년 100일 기도, 기도 집중(100일)

대총회 선교 협회, 2020년 7월 4일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❷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경적인 예는 무엇이 있나요?
- ❸ 바울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나요?
- ❹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고 계신지 알 수 있도록
 - ❷ 도움과 섬김의 성경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원칙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 ❸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여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 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 주변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04

소중했던 훈련 기간



소중했던 훈련 기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적절한 접근 방식은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사로서 경험했던 몇 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록하게 된 데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둘째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저와 다른 두 형제가 신학적 훈련 없이, 다시 말해 평신도로서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목회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저는 22년간의 교회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림교회 집안 출신이며 17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우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선거위원회는 저를 안식일학교 보조 교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흔히 그랬듯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식일학교 보조 교사를 통해 저는 조금씩 수줍음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안식일 학교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개인 사역 지도자,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22년 동안 상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지식은 목회 활동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일년간 영국에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학교인 뉴볼드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경 과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목사이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정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녀는 집과 지역 교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인 절친과 처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저를 다방면으로 준비시키시고, 제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8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저의 선교 방식을 비판적으로 상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무엇을 바꿔 가야 하는지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을 실행에 옮겼을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 ② 제자 훈련 과정을 마련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맺거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의 용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③ 그 후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다룰 것

이런 식으로 구도자를 가르친다면 그들이 침례를 결심하고 교회를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도자의 이 여정에 당신이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는 그들이 성령의 감화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중한 영혼들이 이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의 동역자가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중요한 경험

1968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말한다'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종교 관련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성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4개의 성경 수업을 마쳐야지만 성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1~2과 수업을 받았고, 한 두 주가 지나거나 원하는 때에 답 채점지를 걷어 갔고, 그동안은 그 뒤 2개 과를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제가 맡고 있던 교회가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1968~69년 겨울 내내 안식일 오후마다 약 스물네 명의 사람과 2인 1조로 나갔습니다. 몇 달 후, 700명의 사람이 이 성경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활동은 대규모 복음 전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총회 복음 전도사 앤드류 씨 피어링 목사님이 1969년 4월에 복음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독일 남부연합회 소속 복음 전도사인 라인하르트 룬이 계속해서 강연회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양한 강사가 강연회를 열었으며, 모두 합쳐 약 100개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년 동안 구도자 32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이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도회를 알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침례 결심을 돕기 위해 포다이스 디타모어의 성경 공부 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요즘 저는 마크 핀리의 『설득-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도록 돕

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은 말한다’ 캠페인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700명 중 오직 한 여성분만 침례자 후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잘것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주로 ‘우편 배달’로 사람들에게 교과를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학습 교재들로 구도자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도 전에 너무 빨리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우리의 ‘미미한’ 결과가 성령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말한다’ 운동의 일환으로 10,000가정 이상에 전화를 걸었으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00명의 구도자 중 단 한 명만 침례식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 번째 중요한 경험

제가 경험한 두 번째 큰 캠페인은 1971~72년에 다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문 조사를 하면서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설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독일 책자 『영생을 잡아라』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에게 시험해 보았고 그 효과가 충

분히 입증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책자를 읽게 됩니다. 내용은 구원의 계획을 4단계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받아서 가족들의 주소까지 알려 주면서 가족들을 방문해서 이 책자도 함께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소책자를 먼저 함께 공부했고, 그 후에 우리는 대총회 청년부에서 발행한 청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5개 교과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한다’ 시리즈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말한다’ 강좌에 총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커트 하젤 강사를 모시고 52일 이상 대규모 복음 전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회 마지막 날에 13명이 침례를 받았고, 이 중 우리가 접촉한 150명 중 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대규모 전도회는 700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이 침례를 받았던 첫 번째 전도회보다 몇 배나 더 나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의 세 번째 중요한 경험

제가 그다음에 겪은 엄청난 경험은 1973~74년에 대도시에 있는 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의사 왈데마르 마레츠 박사와 함께 여섯 번의 전도회를 한 후 우리는 구도

자들을 성경 연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7명의 손님과 몇 명의 교회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 책자 9권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은 ‘제자는 누구인가’에 관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교육적으로 잘 준비된 책으로 개인 전도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쓰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 많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 ▶ 그들은 패배와 실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 ▶ 믿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이 제자 시리즈가 끝난 후에 우리는 이 7명의 손님을 52회가 넘는 장기 복음 전도회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막에 1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접촉한 7명의 구도자 중 5명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 ▶ 700명의 접촉자 중 1명
- ▶ 150명 접촉자 중 7명
- ▶ 7명의 접촉자 중 5명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잘 준비된 계획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

람은 절대 전체를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단추를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올바른 ‘시작’이 없다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길’로 빠지지 않도록 다음 단계도 잘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셋길’은 재밌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목표 즉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던 이 세 번째 경험 이후, 저는 항상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나 다른 적당한 시간을 잡아 그들과 함께 <생명을 붙잡으라>라는 전도지를 훑어보기도 했습니다(전도지는 이 책의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저는 기존의 성경 공부 시리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더 의욕이 넘치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힘이 일반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ay
16

교회 청년들과 함께한 특별 경험

1978년 저는 잘랜드의 한 교회 청년반을 초대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은 많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

해 그들이 확신에 찬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 위해 그 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제자 훈련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기쁨으로 믿음을 실천하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잘랜드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붙잡으라> 전도지를 읽은 후에 순종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기록했습니다. 62명의 사람 중 3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 훈련과 성경 연구로 이끈 배드 에이블링에서의 경험

1984년부터 저는 독일 배드 에이블링에 있는 양로원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우리는 매년 봄과 가을에 ‘더 나은 삶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끔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매번 저녁에 11~12번의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로원 직원과 손님들도 두세 차례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이나 가족 또한 직장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30분간의 강연을 했습니다.

저녁 세미나의 중심은 제자 훈련(아홉 권의 책자)에 관한 질문에 대답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지역 교회의 중요성과 미신의 유혹과 같은 다른 주제들을 추가했습니다. 그 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기존의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1984년부터는 양로원에서 사무 관리, 가사 관리, 요리사, 노인 간호 조무사(1년), 노인 간호(3년)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명의 젊은이가 병역 대체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채용할 때 직업 훈련 외에 성경 수업과 건강 수업에도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수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견습 자리를 남겨 두어야 함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모든 수업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만 이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업 수업, 성경 수업, 건강 수업은 훈련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오늘날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면 저는 솔로몬의 잠언서를 활용한 윤리 수업을 추가할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 대한 성경적 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알려 줄 뿐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 줍니다.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신앙과 건강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원자가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수업과 건강 수업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재림교회 여성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 공과 대학에서 목회 훈련

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매년 적어도 한 명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떤 2년 동안에는 매년 7명이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의 믿음을 청년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데려 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지원 단체 구성

배드 아이블링의 그 교회는 1994년 세계 선교 지원 단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 부서로 설립했습니다. 1990년 대총회는 세계 선교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개척 지역이었던 100만 인구 지역들에 첫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홍보했습니다. 배드 아이블링 교회도 자원을 했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합회와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무교 100만 인구 지역 나보이(Navoy)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 우리는 거의 2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그곳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교 활동의 첫 시작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아래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는 행정 기관과 협력하며 활동을 지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협력해서 하는 일을 축

복하십니다. 다음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 1994년부터 개척자(상주하는 평신도 선교사)에 의해 여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나보이-우즈베키스탄의 개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평신도 선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42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41명은 정규직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미개척된 10개의 100만 지역이 개척되었습니다. 이들 각 지역에 교회나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500명 이상의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멋진 경험을 거쳐 2001/2002년부터 배드 아이블링에 있는 우리 지원단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6년에는 인도에서 세 가지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엘렌 화잇은 개인 선교와 외국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희생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된 돈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9증언, 49).
- ▶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 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된다면 국내 선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사업의 반사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6증언, 27).

이 엘렌 화잇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반사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부터 독일에서 목회자들, 성도들, 개척자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8~10년간(1995년부터 시작) 외방 선교에 참여한 교회들이 오직 이 시기에만 독일에 자매 교회를 세웠습니다.

- ◆ **배드 에이블링 교회** – 펠드킬첸 웨스터햄에 자매 교회 설립
- ◆ **린다우 교회** – 왕겐, 린덴버그, 이스니에 자매 교회 설립
- ◆ **위베르링겐 교회** – 풀렌도르프, 마르크도르프에 자매 교회 설립

외방 선교에 참여한 교회들은 약 10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에서 비롯된 ‘반사 영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내 선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의 중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994년부터 선교 잡지 『미션브리프』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국내와 외방 선교, 부흥과 영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부수: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교회 1만 3,000부).
- ▶ 2003년 나보이-우즈베키스탄의 선교 학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전업 선교에 투입된 41명의 개척자/평신도 선교사를 4년 만에 배출했던 선교 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제 교외 선교 본부에 연락하여 건강 전도를 강조한 평신도 선교 학교들을 전 세계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

안했습니다. 협의 끝에 150명으로 구성된 기도 릴레이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관을 원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와일드우드에서 소재한 L.I.G.H.T.-평신도 세계 건강 훈련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의 목적은 6~12개월 훈련 과정이 있는 소규모 건강 전도 학교를 전 세계에 설립하기 위한 봉사/상담/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한 달 동안 건강 전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L.I.G.H.T.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LIGHT 계열의 선교 학교에서 6~12개월간의 건강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5,000~6,000명, 4주간의 집중 교육(2019년 말 기준)을 수강한 인원은 24,000명이 넘습니다.

- ▶ 2012년부터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특별한 ‘40일’을 주제로 하는 부흥 서적을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최고의 복음주의적 개념의 영적 서적이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40일 기도력 시리즈> 1~5권, 헬무트 하우바일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의 번역과 배포를 주선했습니다. 또한 Advedia(독일 재림교회 미디어) 목회부와 협력하여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웹사이트를 개설되었고 지금은 부흥과 세계 선교의 지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위의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문서들도 읽거나 무료 다운을 받을 수 있음. - 번역인).
- ▶ 2014년부터 www.gotterfahren.info라는 웹사이트를 설립하여 구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에 있는 호프-바이블 인스티튜트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이 기관들은 그들에게 문의하는 구도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Advidia의 Ilja Bondar와 협력하여 개설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방문자는 매월 3천 명에서 5천 명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5년 동안 지원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그분의 인도하심과 제게 허락하신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주님이시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목회 활동과 은퇴 생활 모두 충만한 삶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저는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7~58).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의 멋진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장하게 해 주신 것에,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 감사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세계 선교에 한 발짝 내디딜 용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 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돕는 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자, 교회, 행정 기관들 및 지원 부처 등 모든 관련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교 사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사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부흥과 개혁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의 마지막 위대한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경험들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아시아 국가의 합회장

“저는 이 책이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이 책을 알지 못해서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 책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책을 펴자마자 제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책의 pdf 파일을 모든 직원에게 보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읽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와 함께 다시 읽고, 아이들과 며느리에게도 이 책을 보낼 것입니다. 이 책을 우리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저는 우리의 두 가지 주요 언어로 번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모든 선교 사명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언어로 출판하여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쓰는 이유는, 저희 사역자 가족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과 이 책을 사용하여 그분의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 시간에 천 명 이상 참여
“저는 브라질의 쿠리치바-파라나에 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책은 훌륭한 책입니다. 벌써 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기별에 관해 이미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도 모임에 친구가 저를 초대해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두 번째 책인 『예수님 안에 거함』을 연구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천 명이 넘는 형제가 매일 한 시간씩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200

명이었지만 매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형제를 모임에 불러들이셔서 성령을 찾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zoom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미 참가자가 1,000명을 넘었고 모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연구하는 데 헌신한 5명의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모임은 저희를 더 튼튼히 서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 두 권의 책에 대해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영혼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무엇을 배우고 사랑해야 하나요?
- ❷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 ❸ 왜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가 그토록 중요하고 필수적인가요?
- ❹ 여기서 언급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더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 ❷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분별하도록
- ❸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 ❹ 당신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 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경험하도록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두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기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특별히 중요한가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시나요?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고통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내 인생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큰 징표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상상도 못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자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은 은혜라는 특별한
보물로 나를 옹호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떠맡으심으로
저를 얻기 위해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자신의 의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는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인생에서 죄의 힘을 꺾어 주십니
다. 그분은 죄와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나의 인격을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
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분은 나를 상처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살 동
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도
록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 주셨
고, 그것은 내 삶에 확고한 토대가 되며 시간과 영원에 대한 훌륭한 조
언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내 죄의 결과로 나
는 당연히 정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재자이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의로 나를 옹호하시므로 나는 나의 모든 죄에서 사면받았습니
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나는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
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에게 충만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
활의 때에 내 육신이 변화할 때, 이 충만한 삶은 영광의 영생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관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누가 이 친밀한 관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당신이 누리는 충만한 삶의 기반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사랑하신다는 것,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매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께 우리의 우정이 더 강하여지며 이 사랑 안에 저를 지켜 주시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당신은 이 중요하고 훌륭한 우정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른 그 어떤 영적 경험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증거하는 것만큼 그렇게 스릴 있고 보람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업가였던 저는 성공에 관한 한 책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교통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이 이론을 적용한 후에,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우리 삶에 좋은 결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막 5:19).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알려 주고 싶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170번 다른 형태로 언급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오늘 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내

삶의 마지막에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요? 로버트 폴켄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확신 없이는 사명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신빙성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남자, 여자, 아이들을 그분께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너와 나를 그분의 사랑의 통로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후보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당신은 예수님께 누군가를 인도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러길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순결하며 승리하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2.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저는 이를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

우리의 상황은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시몬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눅 5:4~6) 하지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 하시면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실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9). 다른 번역본에 따르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잡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독일어 성경).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 아래 예수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나를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당신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생님이시고 나는 견습생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견습생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나요?

사람들이 예수께 매일 순복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후 제게 보낸 간증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람 낚

는 어부들로 만들 수 있으셨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 ▶ 40일간의 기도 끝에 한 목사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교회 신도들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 ▶ 하루가 흘러가는 동안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영에게 여러 번 확실히 알려 줍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통해 저는 기쁨에 넘치게 되었고, 이것을 본 몇 명의 교회 성도도 이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 ▶ 영향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새롭게 생긴 의욕과 내면의 기쁨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저를 가득 채운 이것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 ▶ 저는 선교 사업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잃어버린 자에 대해 염려하시는지를 성령님이 제게 보여 주고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종종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 하도록 가끔씩 저를 인도하셨으나 이제 매일 증거 할 일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시고 올바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령을 믿음으로 요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매일 삶을 바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증언들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살며 이 일을 행하십니다(『예수님 안에 거함』 책의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장을 참고하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선교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쁨을 줍니다.

개인적인 노력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 그리고 그대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은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그대의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웃[친구, 지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라.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보라”(리뷰 1888. 3. 13.).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경험만큼 행복하고 성취감을 주는 영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이 내용을 간단명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조건들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소망을 제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미 충족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존재를 매일 아침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후 13: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거나 무능해질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능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적(성령 없이 일반적인 인간의 힘으로, 또는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고전 3:1~4; 롬 8:1~17). 자동차는 연료 없이 작동할 수 없고 기독교인은 성령 없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역량, 지원]을 받고…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제 우리는 간단하지만, 주의 깊게 몇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이것을 따르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 당신의 직업이라는 ‘그물’을 떠나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 그리스도께 순복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나 자신을 매일 그분께 순복하나요?

내가 순복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자세한 내용은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 제2장 ‘예수님께 순복함’ 그리고 제3장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완전한 순복은 구원, 새로운 삶(요 3:1~21), 죄에 대한 승리(로마 8:1~4), 성령으로 충만함(엡 3:16~17)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이란 선물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선물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약속처럼 그것은 조건에 따라 주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신성한 대리자들에 의해 인도되고 통제되기 위해 영혼을 순복하지 않는다”(소망, 672). 많은 사람이 종종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성령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지키심에, 그들의 생명을 주님의 명령에 맡기는 자들은 평화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완벽한 순종에는 완벽한 쉼이 있다”(소망, 331).

왜 순복인가요?

순복은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

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모든 본성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바치라고 초대하신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나누려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정로, 43).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 순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치유와 자유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길 때 질투, 분노, 감질, 탐욕, 중독, 격노, 자만심, 낙담, 열등감 등 우리 자아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공은 손에 쥐어진 찰흙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순복할 때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순복을 통한 구원과 구속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의 권세(로마서 8:1~4)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주기 원하십니다(요일 5:18). 게다가 순복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엘렌

화잇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삶의 문제를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 준다. 그것은 우리 본성의 열정에서 비롯된 수천 번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줄여 준다(오늘의 나의 생활, 6).

활력: 성령으로 충만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내 증인이 되리라”(행 1:9).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활동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1:4).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증거 함에 성령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보여 줍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증거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용]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우리는 어린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순복을 통해,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리는 우리의 간증의 말에 의해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순복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순복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고후 5:15).

순복-자세한 설명

‘예수께 순복’의 주요 목표는 〈개인적인 부흥의 단계들〉 시리즈 제2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함』입니다. 제2장 ‘예수님께 순복함’을 다시 읽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2. 성령 충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5~8).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엘렌 화잇의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음(따라서 매일 성령을 요청하고 그분을 받음).

◆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순복을 결심합니다.)(소망, 676)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저 두 가지 신령한 방법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단계(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 그분의 봉사 사업에 거리낌 없이 순복하는 삶)를 통해 우리 안에 사시며,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기쁨을 얻는 길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이 비결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의 제자 됨은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내면의 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눅 11:13과 엡 5:18 의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계속 요청하라고 되어 있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복을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아침 예배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마 6:33 참조). 당신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십니까?(요 5:14~15; 마 11:24; 벧후 1:3~4)

성령 충만한 삶 상세히 살펴보기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에 있는 ‘우리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매일 순복하고 매일 성령을 요청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같은 책에서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이라는 내용도 읽을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하여 약속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Day

19

3. 중보 기도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엘렌 화잇은 말합니다.

“많은 기도로 영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는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전도, 341). 그러므로 성령으로 채워진 중보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 한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번 경험은 독일계 러시아인 자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녀는 40일간의 헌신적으로 기도 시간에 참여했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인은 깜짝 놀라며 성경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과 몇몇 다른 이웃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중 두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 ▶ 제 기도 파트너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40일 기도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기도했던 다섯 명 중 적어도 세 명이 안식일 손님으로 올 것입니다.
- ▶ 읽은 내용에 대해 토론한 후에 우리는 다섯 명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한 젊은이가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 파트너의 친척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 ▶ 한 자매는 40일간의 기도가 끝난 뒤 말했습니다. “집중 기도 후에 성령님은 특히 제 남편에게 역사하셨고, 몇 달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됨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가르치심

예수께서는 중보 기도를 주제로 자정에 온 한 친구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눅 11:5~8). 그 친구는 저녁 늦게 뜻밖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에게는 손님을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게 급히 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는 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친구에게 의지해야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눅 11:9). 그분은 이 문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그분의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긴급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깃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큰 약속이 있습니다.

-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 ▶ 우리가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 ▶ “오직 주께서는…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 ▶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16).

자녀들과 친척들을 위해 주어진 또 다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 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사 49:25).
- ▶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 16:31).

우리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40일 기도력 시리즈> 1, 2, 3권 ‘서문과 개요’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다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록 A: 중보 기도 약속 참조).

하나님의 말씀은 산보다 견고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말씀 역시 우리의 기도에 적용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1).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기도 목록

당신의 친척,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목록을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나요?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긴 중보 기도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매일 다른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기도하여 다른 사람의 염려와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늘어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과 요셉 키털은 우리가 접촉이 없었던 5명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고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요셉 키털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이 되고 친절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을 사랑하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처럼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실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그 주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3, 4주 동안 기도한 후에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기도 모임, 봉사 모임)가 6주간 특별 기도를 계획하고 있고, 각자가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수 있는 건강, 가족, 직장 등 특별한 부탁이 있으신가요?”

중보 기도와 자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요하지도 조종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완전히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제 사랑하는 아내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전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빌립보에 있는 사업가 리디아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중보 기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

지기 시작한 후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는 수많은 간증을 받았습
니다. 여기에 몇 사례를 소개합니다.

- ▶ 재림교인 가족을 둔 한 어르신이 교회와 여러 교회 모임에 매우 정기
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 ▶ 저와 성경 공부를 하는 두 사람이 안식일을 받아들였습니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기도 기간 동
안에 기도들에 대한 놀라운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던 누군가가 오랜 공백 끝에 교회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
은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 ▶ 한 여성분의 막내아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40일 기도
기간 동안 그녀는 기도 파트너와 자신의 막내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
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아들이 삶을 바꾸고 침례 준비를 시작
했습니다.
- ▶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한 남성이 정신 질환에 걸려 직장을
잃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실패한 데다 이러한 상태
가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승리하여 유능한 목회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기도 파트너가 40일 기도 기간 동
안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고 두 달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용서
할 수 있었으며,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삶의 기쁨
이 돌아왔고, 다시 직장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상세히 쓰인 세 개의 간증을 보면 40일간의 기도 기간 동안 중보 기
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과 서로 조금도 엮이기 싫어하
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참고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Testimonies: No. 3/40, 4/52, 7/84 a und 7/84 b).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역
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도자와 계속 연락할 수 있나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40일 기도력 시리즈>의 '소개 및 개요' 부
분에는 구도자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데니스 목사님이 소개한 목록에는 우리의 기도 목록
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록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추가하십시오. 우리 역시 몇 가지 제
안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목록은 '부록 B: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방법
에 대한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물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모본, 연락을 통해 타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
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 아
래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 ▶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 ▶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 ▶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을 더 깊이 헌신하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9장 ‘실용적인 도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하심과 그분의 훈련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위에는 개전(改悛)의 정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고 있나 아니면 세속적인 사물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나? 그대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명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접근하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대리자이심을 그대들은 알고 있나?”(1기별, 190)

능력 있는 증인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 사업이 일어난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실 것이다”(6증언, 90).

[경험]

전체 공동체에 일어난 화해

캐리비안 과달루페의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경험

“우리 구역의 다른 공동체에서 경험한 두 번째 경험입니다. 저의 전임자는 ‘실제 지뢰밭과 같은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갈등이 매우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다툼, 분열, 상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과 인신공격은 공동체 전체를 먹구름으로 뒤덮었습니다. 교회 신도들이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거미줄에 걸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정별로 모임을 만들었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소책자를 각 모임에 배포했습니다. 교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소책자에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10일 기도를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마침내 교회 전체가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집회는 새벽 4시에 다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많아졌고 멋지고 평화롭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교회에겐 너무 힘들었던 마지막 단계인 진정한 용서를 위하여 그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벽이 무너지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투던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용서를 구하고 서로 포옹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슬픈 얼굴들이 다시 행복해졌으며 그들의 가슴에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험하는 것은 항상 멋진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뢰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과달루페).

남부 독일의 한 교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지금 세 번째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번갈아 공부 중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발견하기 전, 우리의 신앙 체험과 기도 활동은 처음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를 갈망했는데 찾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M.S).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❷ 어떻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나요?
- ❸ “예수께 순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요?
- ❹ 당신 주변의 구도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 ❷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이끄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 ❸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를
 - ❹ 어떻게 구도자와 접촉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에 축복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분별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올바른 순서가 중요한 이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순서: 1-예수님, 2-제자 훈련과 성령, 3-성경적 교리들, 4-침례, 5-훈련



검토

마지막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9).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훈련생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능력이 개발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능

력을 개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가 훈련의 조건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의 삶을 매일 그분께 바침으로써
2. 매일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약속을 사용하여 기도함 - 뱀후 1:4)

우리의 '훈련'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장인이란 뭔가를 고안해 내는 사람이다. 기술자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훈련생이란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장인과 기술자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의 친밀하며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요한 10:10). 그분의 재림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요 3:16). 이 중요한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이 관계의 기쁨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소중한 경험들을 쌓

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선한 일은 그들이 이러한 풍요로운 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나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전 장에서 개인적인 간증들을 읽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강하게 불붙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두 개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한동안 매일 성령을 위해 기도한 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곧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몇 성도가 우리의 열정에 전염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후 그녀의 아들의 삶이 바뀌었고 침례 받을 준비를 시작했습니

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전염되어 지금은 기도 파트너를 주시라고 기도 하고 있으며 그 두 권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평생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평생 사업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모든 사람의 평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봉사, 10).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또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 49:6).

많은 사람이 위의 말씀대로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중 다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눅 5:5)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는가? 지난 5장에서 언급했던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켰는가? 문제를 겪은 이유는 성령의 부재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눅 5:5).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

다음의 전제 조건을 간략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 ▶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겼나요? 모든 일에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완전한 순복을 통하여 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했나요?
- ▶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성령으로 가득 찼었나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받았나요?(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벨후 1:4 참조)
- ▶ 그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했나요?
- ▶ 개인적으로 접촉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나요?(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의 <40일 기도력 시리즈> 제1권과 제2권)

Day
22

풍성한 축복을 받는 방법

이번 장과 다음 7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주 즉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

싶은 열정을 주옵소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는 당신과 나를 통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음을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 하기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일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완전히, 혹은 더 가깝게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엡 3:16~17)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거함” 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거듭

남”(요 3:3) 또는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남”(요일 5:18)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엘렌 화잇께서 훌륭하게 요약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의미:

- ▶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 ▶ 그분의 봉사 사업에 거리낌 없이 순복하는 삶
- (시대의 소망, 676. 2)

매일 아침 믿음으로 요청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갈 3:14). 우리가 요청하는 중에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성령을 받습니다(요 5:14~15; 막 11:24).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는 것을 ‘바라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특히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약속을 의거하여 기도함” 장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약속에 의거하는 기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분명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로써(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

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 핵심인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는 우리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매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저의 전 존재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왜 사람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나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순서를 지키는 것은 항상 이롭습니다. 올바른 순서를 지키면 당신이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더 쉬워집니다. 또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더 기쁘게, 더 강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낮게 만들어 줍니다.

1.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은 대개의 경우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교리를 받아들여 실천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이 사람은 보통 아직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독일어 성경).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산’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힘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라는 장,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라는 부분을 읽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즐거울 수 있느냐는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의 ‘예수님을 통한 순종’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없으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3.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값진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주시고 재림 후에 우리가 신성한 영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그(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골 2:9~10).

4.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의 횡포 즉 우리의 오래된 본성의 타락(분개, 시기, 분노, 자부심, 열등감, 불만족, 의심, 웅졸함 등)과 중독, 주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러한 기질로부터 해방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전 15:31). 그리고 마틴 루터는 옛 아담을 익사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오 이런, 그 친구가 수영을 할 줄 아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6절의 약속과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이런 기도를 영원히 해야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담배나 술과 같은 외적 사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편지 5). 누군가가 자유로워졌을 때 새로운 유혹이 여전히 그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의 능력 속에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사람들이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자신의 삶을 바치는 법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의 힘이 깨어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롬 8:1~2; 갈 5:16).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요한 5:18).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5.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롬 5:5)으로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1, 14~15).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갈 5:22; 고전 13:1~7).

②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능력)을 받고,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받는 이유입니다.

Day 23

6.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꼭 전해야 할까요? 심판의 기별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해 줍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

간이 이르렀음이니...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다니엘 8장 14절에 따르면 첫 번째 심판(재림 전 심판) 단계는 이미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판은 마지막 무리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 4:1)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나는 구원받은 것인지 깊이 고민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고후 5:11).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가올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엘렌 화잇은 “두려움”이라는 용어에 대해 매우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분께 대한 적절한 두려움은 떨리는 영혼을 예수께 피하도록 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결실을 맺는다.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회개로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 주님

은 단지 기록만 남기려고 그렇게 무서운 경고와 심각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고 말한다”(리뷰, 1890. 10. 21.).

두려움에 대한 여러 다른 구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를 읽으며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머무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더 언급하자면 “믿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의탁함”, “자신의 존재를 다른 누군가에게 구속하기”, “누군가에게 의지함”, “누군가에게 충성함.”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우리의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리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기별을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 모든 악이 끝나서 모든 분쟁, 질병,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러시아 군사 작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최전방 참호에 있었고 그들 바로 맞은편에 러시아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군 병력이 추가로 합류했고 순간적으로 최전방 참호가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호에 있던 독일 병사가 “정지”를 외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러시아군의 품으로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참호 안의 독일 병사들은 전우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심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7.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심고 수확하는 신성한 원리에 따라 뿌린 대로 수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더 많이 수확할 것입니다. 수확은 보통 씨앗의 배수로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말씀하셨습니다(막 4:20).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래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6~8).

8.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 함으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 5:20 한글킹). 모든 대사는 자기 나라와 대통령 또는 왕을 대표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분의 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9. 성령은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과 권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화잇 여사는 사도행전 1장 8절(한글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그러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경고하는 것은 성령과의 결합이자 산증인의 증언과의 연합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늘의 기별을 받는 대리인이며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신다”(리뷰, 1893. 4. 4.).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힘, 권한, 권한 부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권한을 부여하고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능력과 권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나요?

10.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대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나의 결정
2. 나의 준비 과정
3.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다니엘을 예로 들어 봅시다(단 1:8~9).

1. 다니엘은 마음속에서 목적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다니엘의 준비 과정: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문제 상황을 두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수석 감독에게 청원하였습니다.

3.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9절).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고 싶은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을 취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합니다(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살아 계실 때 그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싶은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다음을 배웠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훈련이나 물질, 방법은 전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검증된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소책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7장에서는 소책자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소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12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소책자에서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검증된 소책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소책자를 잠깐 훑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대부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 대해 솔직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처음으로 해야 요령 있게 바로 핵심으로 연결될까요?

- ▶ 어떻게 하면 구도자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구원의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 ▶ 구도자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미래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구도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좋은 답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답은 <생명을 붙잡으라>라는 전도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책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전 세계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자를 사용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심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기꺼이 원하도록 해 주옵소서. 부디, 제 안의 열망을 깨워 아버지를 위해,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돕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선한 정신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① 효과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을 때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하나요?
- ②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③ 우리가 성서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왜 사람들을 예수님께 먼저 인도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 ④ 다음 원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에 대해 앞장서서 증거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세요.
- ①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도록.
 - ②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도록
 - ③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 ④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도록

07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나요?

〈편지 13〉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붙잡음”을
사용하여 함께 성경 연구하기



우리는 먼저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 후 9장에서는 〈전도를 위한 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전도 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재림교회 전도사인 아이텐 K. 월터는 “저는 책자 없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책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책자는 처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 책자의 12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의 핵심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2. 성경 구절을 하나씩 따로 보면 그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는 전도 서적을 통해 성경 구절도 배우지만 전체 맥락 안에서의 복음도 배우게 됩니다. 즉 구원 계획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짜임새 있는 책자는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구도자는 당신의 말을 듣는 동시에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시청각 자료의 역할).
4.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해 주고 대화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5.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6. 들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7.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며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8.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때문에 대화 상대방에게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9. 신앙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책을 발견했는데 혹시 그 책을 알고 계신가요?”
10. 또한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책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꼭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자를 받으면 성경 속에 간직합니다.
12. 이와 동시에 예수께 마음을 연 구도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장점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 책자를 사용해 보고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세요.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공부보다 낫습니다. 저라면 가능한 이 책자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계들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경험들

경험 1: “그 당시 40세였던 저희 매니저와 딱 한 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1번 핵심 질문을 했고 그녀는 저와 함께 책자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날은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내 생애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 후에 그녀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미래에는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생명을 붙잡으라>라는 전도지를 그녀에게 남겨 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험 2: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모술로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한 이라크인 학생과 기차의 한 침대칸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끝난 후, 그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기도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했고, 그 학생이 기도를 하고 싶

은지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모든 내용을 기억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장씩 기도해야 했고 그는 저를 따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빌며 그의 고향 바그다드에 재림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 학생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경험 3: “제가 처음 방문했던 새로운 교회에서 한 훌륭한 교인과 그녀의 17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탈리도마이드란 약물 때문에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하고 난 후 그 어머니와 아들은 저와 함께 <생명을 붙잡으라>는 전도지를 읽는 것에 의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 중에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얼마 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간증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쁘게 고백했습니다.”

경험 4: “또 한번은 재림교인과 결혼한 38세의 남자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줄담배(하루 70개비)를 피는 흡연자로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저에게 또 다른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하루에 맥주를 열 병에서 열네 병

정도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술도 끊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했고 주님은 그를 술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 다음번에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와 함께 <생명을 붙잡으라>는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여러 질문과 생각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순복하는 기도를 한 후에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였고 그의 아내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첫 기도에 응답하시고 담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분이 나를 술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 그리고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한 이후로 그분은 매일 나의 삶에 들어오셨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 그가 한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모든 자세한 내용은 <편지 5> “담배와 술에 대한 승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중독에서 벗어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포함된 시작 세트를 가지고 <편지 13> ‘생명을 붙잡으라’를 읽어 보세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이 소중한 도구(나라별로 불리는 이름은 다름)가 사용됩니다. 9장 ‘실제적 도움’에서는 이 시작 세트 및 <전도를 위한 편지>에 대한 다른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 13>을 읽은 후 이 책으로 돌아와 7장을 계속 읽으세요. <편지 13>에 대한 이 장은 구도자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기체로 된 메모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읽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지 13> ‘생명을 붙잡으라’를 읽으세요.

읽은 후에 책에 있는 이 지점으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첫 질문으로 해야 현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편지 13> ‘생명을 붙잡아라’를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13번 편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직설적으로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다들 언제나 ‘예’라고 대답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도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묻습니다.

◆ 주요 질문 1번

“당신이 오늘 사망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세요(심장 마비 또는 사고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대답은 대부분 “아니요”이며, 때로는 “그러면 좋겠습니다”거나 드물게는 “예”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대해 제 생각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라고 대답할 때만 주요 질문 1a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 주요 질문 1a

“또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저는 항상 그들의 허락을 받고 난 후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 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답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행위에 의한 칭의인지 믿음에 의한 칭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에도 절대 제 견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한 편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주요 질문 2번

“이 확신을 갖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항상 긍정적인 대답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책자를 읽을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면(보통 “그렇습니다”) 저는 <편지 13>을 건네주고 함께 읽습니다(여러 사람이 있을 때를 대비해 여러 권을 가지고 가세요.).

함께 읽는 동안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기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산만해집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탤릭체로 쓰인 모든 것이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의 책자에도 적어 보기를 권합니다. 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전도를 위한 편지> 중 ‘생명을 붙잡으라’ 부분이 우리가 매우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는 유일한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와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Day
25

Day
27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붙잡으라 <편지 13>

“저는 우리 교단의 매우 중요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편지에서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바로 해도 될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고 가정한다면(심장 마비, 사고 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지 마십시오! 다섯 가지 사실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일생의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 ▶ 지금은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 ▶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태초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한 이 결정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이든 소극적인 무관심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2).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모든 불의가 죄로되...”(요일 5:17).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없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 혹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는

생각이나 종교적인 업적들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구렁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는 죄와 그 결과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3. 이 모든 인간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응답하시는가?

그분의 죽음으로 저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그분 사이의 깊은 구렁을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4.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인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

- ▶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 ▶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계 3:20).

◆ 두 가지 가능성



나의 자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음.

나의 자아가 다스립니다.

그 결과는 높임을 받고 싶은 갈망, 의심, 불안, 죄책감, 내적 불안정 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평화, 확실성, 용서, 사랑,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위의 그림 중 어떤 것이 내 삶을 나타낼까요?
- ▶ 위쪽 그림인가요, 아니면 아래쪽 그림인가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봅시다.”

(잠시 후에 일시 중지한 후 묻습니다.)

“현재 위쪽 그림이 더 적용됩니까, 아래쪽 그림이 더 적용됩니까?”
(그분들의 답변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 ▶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 ▶ 당신은 미래에 어떤 그림을 원합니까?
(이제 다음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어느 경우이기를 바라시나요?”
(답변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춘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개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입니다.)

(답변에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계속 읽습니다.)

“4쪽을 계속 읽어 봅시다.”

기도문을 포함해서 읽으세요.

(하지만 기도문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당장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아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기도 ◆

“나의 주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당신을 인하여 당신에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이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악의 권세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당신을 따를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존재와 함께 제 자신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저는 영생을 받으렵니다. 제 힘으로는 얻지 못했지만, 이 선물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 기도에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자세히 이 기도를 한 번 더 읽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기도

는 당신의 의지와 일치하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곳은 바로 당신의 의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이 기도에 ‘네’라고 대답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에 기도문을 두 번째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세요.

두 번째 읽기

두 번째 읽기가 끝나면, “당신은 이 기도에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준 뒤 상대방이 말이나 표정으로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이제, 당신이 큰 소리로 이 기도문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이 기도문 그대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전에 다음 문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 ‘네’라고 대답한다면 이제 나는 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무릎을 꿇도록 합니다.*” 이런 기도에는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함께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28

5.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나의 삶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에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후에 짜릿한 감정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한 엔지니어는 실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헌신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 없이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나의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당신은 구구단을 압니다. 예를 들면 2×2 는 4, 4×4 는 16입니다. 구구단은 사실이며 당신이 사실이라고 느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느낌은 사실에 대한 척도가 아닙니다!

그 엔지니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이 단순한 원칙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서 새로운 것과 변한 것은 무엇인가?

1.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계 3:20; 골 1:27).
2.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골 1:14; 요일 1:9).
3.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분의 자녀입니다(요일 3:1).
4. 나의 생애는 이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요 10:10; 고후 5:14~15, 17).
5.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나를 도우십니다(요 14:15; 15:10~11).
6. 나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막 16:16).
7.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영생을 주십니다(요일 5:12).

예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생명은 성장이며, 침례는 퇴행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 ▶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 ▶ 나는 하나님의 구속에 의지하고 요동하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 ▶ 나는 기도 생활을 지속합니다.
- ▶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 ▶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갖습니다.
- ▶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 ▶ 나는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나는 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약혼에 빗대어 보고 싶습니다. 약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약혼 후에는 아름다운 시간이 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새로운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며 두 사람이 영원히 서로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때가 오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성경의 침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요약해 보려고 하므로 당신은 어쩌면 제 편지를 여러 번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부릅니다. 기도에 대해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복음서는 전반적인 개요를 알게 하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또한 성경을 14일 시험해 보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15>를 참고하세요.). 더 깊은 통찰을 위하여 주제별 성경 연구도 더하여 추천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무료 성경 통신 강좌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즐기고 유지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저는 다음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나누기를 고대합니다(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 -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당신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생애에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독일어 성경).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독일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을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독일어 성경).

헬무트 하우바일과 커트 하셀 / <편지 13> “생명을 붙잡으라” - 끝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

귀중한 한 영혼이 <편지 13>에서 순복 기도를 할 때 당신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순복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일 뿐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영혼이 아직 침례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 공부나 성경 공부를 할 준비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편지의 끝부분을 함께 읽게 되면 앞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성경 연구를 반드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순복 기도를 거절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앞에서 읽었던 기도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책자를 가지고 있으시니 원한다면 나중에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 내용은 함께 끝까지 읽어 볼까요?”

만약 구도자가 동의하면 함께 끝까지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도자에게 소책자를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순복 기도에 동의하지 않은 구도자에게 두 번째로 전도를 시도할 때 같은 소책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영생에 이르는 길>(The Way to Eternal Life) 팸플릿을 사용하십시오(책 끝에 있는 첨부 파일 C 또는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서 <전도를 위한 편지> 참조).

두 책자는 같은 주제를 취급하지만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작 세트에 Z1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단계를 기도로서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

이 소책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에게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책자를 지난 몇 년 동안 400명에서 500명 정도에게 읽어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많은 경우 처음 만나서 1대 1로 대화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다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첫 만남을 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기별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자는 사람들과 만나는 초반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자 공부나 성경공부로 이끌어 줍니다. 추후에 더 방문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이제 매우 많습니다. 9장에서 저는 몇 개의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팁

제가 이탤릭체로 적어 둔 위의 질문을 여러분의 책자에 적어 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모든 과정을 연습해서 자신감을 얻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무런 질문 없이 함께 읽기만 하거나 다른 시간으로 미루세요. 아니면 열심히 그 일을 위해 기도한 후에 혼자 읽으라고 책자를 전해 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담배나 술이나 다른 종류의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편지 5> “담배와 술을 정복함.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온전히 자유 할 수 있을까요?”를 사용하세요. 경험 4 아래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생명을 붙잡으라> 또는 <영생에 이르는

길> 전도지를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

이제 <편지 14>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의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성경 공부여야만 합니다(가능하다면 이 책 8장에 나와 있는 <편지 14>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 어떻게 가능한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귀한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제에 적절한 질문들이 나와 있으므로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 13>(또는 이 편지를 좀 더 짧게 다루는 <영생에 이르는 길>)과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편지 14>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께서 다음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장에 나온 기도와 8장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삶의 긍정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밟았다면 그 이후에 구도자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고 그다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 책을 읽도록 제안하거나 구도자와 함께 공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책 끝부분의 도서 예약 참고).

경험들

출판 전 테스트

저는 두 명의 신학자에게 저의 책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저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은 처음에는 당신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고, 그다음에는 당신을 통해 모든 독자에게 하늘이 내려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지금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영적인 책이 몇 권 있었지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은 매우 특별합니다. 성령과 함께 충만한 삶으로 이르는 길이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피할 수 없고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2012년 5월 1일 이메일 - 두 신학자 모두 출판을 권장하였습니다.

루드비히스부르크 교회로부터 - “제 남편과 저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 시리즈의 1권을 공부하고 있었고, 함께 기도하며 큰 개인적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루드비히스부르크 교회에서 매주 두 차례 기도회를 열고 교인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많은 기적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중을 영적으로 깨우셨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회중으로 단결시키셨습니다. 40

일 동안 5명을 위해 기도한 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 예배에 자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 중 한 명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동영상과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통해 안식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동안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K.A.C.S(약칭)

생동감 넘치는 중보 기도 - “처음에는 그저 책 한 권(『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 시리즈 1권)을 다 읽었을 뿐이었어요. 기도 파트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책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참여했던 저의 기도 파트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책의 첫 페이지부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에 중보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결코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후회가 됩니다. 살아 있는 활기찬 믿음! 기도를 받는 사람 못지않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중보가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이 될까요?
- ❷ 나 자신이 다음과 같은 복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2.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 ❸ 네 번째 포인트(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에 나와 있는 질문들이 나의 개인적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 질문들이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나요?
- ❹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❺ 당신이 예수님께 순복할 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❻ 순복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약혼에 비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영혼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 ❷ 내 생애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 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을 가지도록
 - ❹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할 수 있나요?

〈편지 14〉(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 어떻게 가능한가?)와
이 책을 함께 읽기



자, 이제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초신자 세트’로 가서서 14번 편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 어떻게 가능한가?’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신 다음에 이 교재로 돌아와서 남은 부분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성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소중한 도구를 잘 사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도자가 질문하지 않는 한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도

자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한다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205쪽을 소개해 주거나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세요.

 님께,

저는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좀 더 친밀한 설교를 하고 싶었기에 참고할 만한 것을 찾고자 그녀의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원한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바로 지금 경험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새로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면한 도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속적인 예수님과 관계를 위한 동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이 차를 밀어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차에 기름이 있을 때 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름 없는 차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께서 사랑스럽고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단 하나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성경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9~13).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절에서 “구하라”는 동사를 여섯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두 번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고 행동 동사 “찾으라”라는 말로 보강하시며 그다음 역시 행동 동사인 “두드리라”라는 동사를 두 번 더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하라”는 연속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한 번

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구함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엇을 빠뜨리고 있음을 확신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며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동사들을 자주 반복하시며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능수능란하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속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성령은 그 안에 다른 모든 선물이 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실체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이끄심에 맡길 때 우리에게는 매일이 진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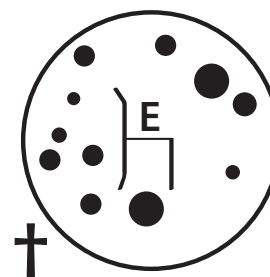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세 그룹의 사람에게 대하여 말해 줍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① 본성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E =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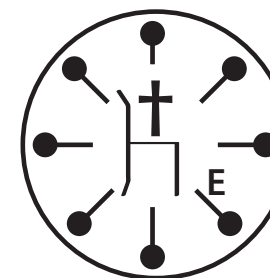
† =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애 밖에 계심.

● = 삶의 영역들은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자주 불화와 실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②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고전 2:15).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생애

† =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보좌에 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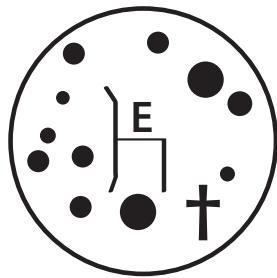
E = 자아는 물러남.

● = 삶의 영역들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성장하여 간다.

③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나 성령의 능력 대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패배를 경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 3:1~3).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E =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음.

† =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계시지만 그들의 보좌에 계시지는 않다.

● = 자아에 의해 통제되고 종종 불화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영역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네 단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들과 육적 사람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라”(요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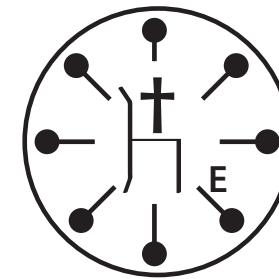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나타낸 몇 가지 특징들



▶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

▶ 성령을 통한 권위

▶ 효과적인 기도 생활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 하나님을 신뢰함

▶ 하나님께 순종함

▶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사랑 | 희락 | 화평 | 오래 참음 | 자비 | 양선 | 충성 | 온유 | 절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는 효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지, 그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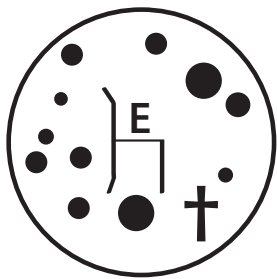
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금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오랫동안 진리를 알아왔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큼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생애를 경험하지 못하나요?

2. 육적인 사람들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몇 가지 혹은 모든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 ▶ 그분의 영적 재산들에 대해 무지함
- ▶ 불신
- ▶ 불순종
- ▶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랑
- ▶ 불충분한 기도 생활
- ▶ 성경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불순한 생각들 | 질투심 | 죄책감 불필요한 근심들 | 낙심 | 비판적인 태도 | 절망 | 목적 없음 | 율법주의(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일하여 얻어야 한다는 생각)

(자신들을 참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참그리스도인인지 요한일서 2장 3절, 3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따라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Day
30

3. 예수님은 충만하고 열매 맺는 생애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와 권위의 결과이자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계속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사시며 역사하십니다.

A. 요한복음 3장 1~8절에 따르면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생명을 받았고 그것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밖으로부터 공기, 물, 음식 등을 받음으로 보존됩니다.

다. 영적 세계도 자연 세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고 적당한 때에 성경적 침례를 받음으로 증거 할 때 우리는 성경이 거듭났다(요 3:3)고 부르는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행 2:38; 요 1:12; 14:16~17). 그렇게 이 영적 생명은 살게 되며, 성령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등이 함께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B. 성령은 풍성한 생명의 원천입니다(요 7:37~39).

C.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오셨습니다(요 16:1~15). 사람이 성령으로 채움을 입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D.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행 1:1~9).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4.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홀려넘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생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일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 때 지금 성령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마 5:6; 요 7:37~39).

B. 성령으로 채움을 입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7:38).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 3: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음 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5)고 말해 줍니다.

다른 번역본(개역한글)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

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담배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그가 요청을 말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담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더 자세한 것은 <전도를 위한 편지>중 '담배와 술을 정복함'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부분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5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C.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13절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편지 서두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장하며 하는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기도의 모본입니다.

“하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실패한 시도들을 아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엡 5:18). 저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더욱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고(눅 11:13)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제가 요청한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성령으로 채워졌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요일 5:14~15).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무슨 권위에 기초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 11:6; 롬 14:22~23)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중

요하지,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예는 사실(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음(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느낌(믿음과 순종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기차는 화물칸을 달거나 달지 않거나 갈 수 있습니다. 화물칸이 기관차를 끄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있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Day
31

성령 안에서 사는 법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매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에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A. 당신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것이며(갈 5:22), 당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 갈 것입니다(롬 2:2; 고후 3:18).
- B. 당신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 C. 당신은 유혹과 죄를 저항하도록 해 주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요”(고전 10: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 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
하느니라”(요일 5:18).

D. 당신이 증거 할 때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할 것입니다(행 1:8).

영적 호흡

믿음을 통해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할지
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태도나 행동을 허락하시지 않는
다는 것을 당신이 분명히 느낄 때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나 불화와
같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불순종 즉 죄를 짓게 될 때는 영적인 호흡을 연습해 보십시
오. 영적 호흡(불결한 것들을 내쉬고 청결한 공기를 들이쉬)은 믿음을 행하
는 일이며 영적 호흡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
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내심

당신의 죄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고백하고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의 심판에 동의하고 그분의 용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요일 1:9; 히
10:1~25). 고백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 들침

당신 삶의 통치권을 다시 그리스도께 넘겨 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
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14~15절
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당신을 계속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
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거나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당신에게 큰 기쁨
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헬무트와 나의 친구 컬트

(헬무트 하우바일과 컬트 하셀 저/오순근 역/ 정재현 감수/ 연주희 편집)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연료가 없는 차에 비유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❷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이 가득한 초대를 하셨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눅 11:13의 마지막 “구하라”는 헬라어로 진행 시제 즉 매일 구하고 또 구한다는 의미)
- 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세가지의 그룹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요?
- ❹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나요?
- ❺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고후 4:16) 우리가 매일 성령을 간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❻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나요?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 ❷ 당신 안에서 영적인 사람의 특성이 자라나도록
- ❸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구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구들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편지>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비디오 시리즈
참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영혼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각자 맡은 바가 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교회 전체를 섬기는 정신이 모든 사람을 그분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봉사, 10~11).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동역자로서 성장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편지>들

이 편지들은 저의 30년간의 사역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졌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구도자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사용하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편지 13> ‘생명을 붙잡으라’와 <편지 14>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 삶 - 어떻게 가능한가?’는 편지를 함께 모으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 이 편지들 없이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는 이제 오디오북 형태로 <전도를 위한 편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30권의 책자를 더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편지>는 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통찰력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도를 위한 편지> 오디오북 CD를 받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안식일에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 CD를 들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편지에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의 주제들은 구도자를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다섯 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전도를 위한 편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으로 읽어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글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편지는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편지 형태는 사람들에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게 말할 수 있게 하고, 받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접촉을 시작한 구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하나요?

〈편지 4〉 -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 편지는 처음 연락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제는 기독교 신앙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특이한 각도에서 보여 줍니다. 모든 편지 중에서 이 〈전도를 위한 편지〉 시리즈 중에서 이 편지는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이 내기는 '파스칼의 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이크 파스칼은 기독교 가르침의 정확성이 50:50에 불과하더라도 모

든 분별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명한 외과의이자 확고한 기독교 반대론자인 비고 올슨 박사는 블레이크 파스칼의 진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기독교 신앙에 맞서 죽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연구 끝에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가정 아래 또는 거짓이라는 가정 아래 그들의 삶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이 내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편지 1〉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편지 1〉 -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앙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백 번 거쳤고 매번 긍정적인 반응과 놀라움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1.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2. 나사렛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가?
3. 성경 혹은 성서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쓰였는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의 작품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매우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습니다. 직접 읽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 1>은 하나의 예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1번을 읽을 때 <편지 8>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편지 1> 다음번에 8을 읽었습니다. <편지 8>에서는 세 가지 예언이 추가로 다뤄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뢰를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편지 8>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성취 가능성 1:10¹⁷

이 <편지 8>은 특히 나사렛 예수께서 거룩한 구원자이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믿음을 강화해 줍니다. 편지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양한 예언과 그 성취가 다루어집니다. 8가지의 상세한 내용을 통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예언의 실현이 왜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좋은 기회입니다.

<편지 2> -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인물: 나사렛 예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독특하며 그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분, 예수님의 삶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특별하신가요? 예수님의 삶이 그 어떤 위인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나요? 당대의 사람들과 역사는 그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실을 조사한 후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의 구도자는 성경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확실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 3> -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편지 3>에서 간략하게 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98%가 성경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편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노력하여 얻을 수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누군가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전도를 위한 편지>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지 13> -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생명을 붙잡으라

당신이 오늘 사망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세요(심장 마비 또는 사고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어

덤 속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진실이 당신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의 7장은 <편지 13> '생명을 붙잡으라'를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편지> 시리즈를 몇 번 반복해서 읽는 것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 주고 싶은 모든 구도자를 위해 간절히 계속하여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이 두 가지 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읽도록 <전도를 위한 편지>들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읽는 것이 확실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으며 도움이 되고 더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도자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 시리즈를 구도자와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언제 책자를 건네야 할지, 언제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시리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역할은 순복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에서 구도자가 순복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얼마의 시간을 보낸 후에 21번 <영원으로 가는 길>을 구도자에게 보여 주며 다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는 조금 다른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함』 제 2장 '예수께 순복함'을 읽어 볼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구도자도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편지 14> -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 -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바로 지금 경험하기를, 재림 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새로운 삶을 영원히 계속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전도를 위한 편지> 시리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욕과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지 5> - 담배와 술을 정복함

구독자가 중독으로 속박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이 훌륭한 예

시를 활용하세요. 39세의 한 트럭 운전사는 흡연의 습관을 버리기 원했습니다. 그는 매일 60~70개비의 담배를 피웠으며, 그가 시도했던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금단 증상 없이 즉시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그를 도울 수는 없으며 다만 저는 그를 정말로 돕기 원하시며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돌프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바로 즉시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14일 후에 그는 하루에 맥주를 10~14병씩 마시던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독에서도 그를 해방시키셨고, 아돌프의 주치의는 그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1년 후, 아돌프는 저축한 돈으로 아내와 딸들과 함께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작 세트 -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편지〉

우리는 이 책에 〈전도를 위한 편지〉 시작 세트를 추가했습니다. 왜 시작 세트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전도를 위한 편지〉 총 17통 중에서 구도자와 관계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편지들을 뽑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해 줍니다. 7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책자의 12가지 장점을 기억하십시오. 한 봉투에

는 8통 편지 중 한 통의 복사본이 들어갑니다. 1, 2, 3, 4, 5, 8, 13, 14번 그리고 Z1번 편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림 일러스트레이션과 매력적인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지가 담겨 있는 봉투를 기쁘게 나눠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구도자 한 사람 당 한 세트의 봉투가 필요합니다. 봉투는 언제, 어떤 번호의 편지를 주었는지 등과 다른 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작 세트를 추가 주문하기 위한 주소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편지는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편지〉 17통은 모두 영어나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제자 훈련

만약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편지 13) 이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화잇 여사의 『정로의 계단』(여러 다른 제목으로 번역됨.)이라는 훌륭한 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지? 이 책은 많은 언어로 제공됩니다(150개 언어로 번역됨.).

성령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도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제자 훈련 공부가 끝나면 다음 편지 중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경 공부 시리즈를 공부하거나 필수적인 성경 진리들이 들어 있는 전도 시리즈 비디오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F에).

〈전도를 위한 편지〉 나머지 9통의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나머지 〈전도를 위한 편지〉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 끝에 있는 부록 D를 보세요. 여기에는 각 편지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편지 6〉 –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다니엘 2장)

〈편지 7〉 – 예방 아니면 치유?(건강 기별 소개)

〈편지 9〉 – 네 도시에 대한 예언(성경에 대한 믿음 강화)

〈편지 10〉 – 예수님과 안식일(제가 구도자와 안식일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내용은 공격적이지 않으며, 편견을 줄이고 안식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편지 11〉 –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그분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서기 70년에 일어난 '작은 심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편지 12〉 –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우리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나요 아니면 종말인가요?)

〈편지 15〉 – 성경을 읽는 것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 어떻게?(성경을 읽으며 많은 이들이 지나온 길을 살펴봅시다.)

〈편지 16〉 –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나요?(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편지 17〉 – 당신은 누군가에 대해 반감이 있나요?(어떻게 용서하고 잊을 수 있나요? 용서는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특정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전도를 위한 편지〉를 당신이 잘 숙지 하셔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편지들을 구도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

당신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새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을 활용하여 성경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추가로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의 주제는 기본 진리 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제자 됨에 대한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난 후에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 구도자가 예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비디오

가르칠 지도 교사가 없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중요한 성경 진리가 담긴 전도 시리즈를 찾아보세요. 20~30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시리즈가 가장 좋습니다. 부록 F에는 15개 웹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어린이, 청소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존 성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대총회의 전 교인 참여 운동(TMI) 웹사이트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 전도, 문서 보급 및 건강과 복지, 당뇨병, 우울증 회복, 요리학교 등에 대한 다양한 시리즈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록 F에서 당신은 귀중한 웹사이트의 보물 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서 다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헬무트 하우바일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비디오 설교 7편
-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오디오북, 목소리: (신) 심인희, 최철규, 박

지혜, 김난경, 정재명, (구) 성시영

-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는 방법' 관련 3편의 비디오 '하나님을 위한 친구 만들기: 그분의 선교 사업에서 나눔의 기쁨.'(『장년 교과 안내서』 - 2020년 3분기 표준판)

이 교과 안내서의 주요 저자인 마크 핀리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려는 그분의 일에 즐겁게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2020년 3분기 장년교과 안내서를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Day
33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존 교인들과 구도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성경 공부를 통해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된 교회가 존재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

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나의 교회]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한글킹).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를 연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 수 있는 하나의 경험담입니다. 세 명의 자매가 있었고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요?” 목사님은 자매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자매들은 거기에 대해 모두 긍정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비교적 짧은 성경 공부를 통해 스스로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세 자매는 그 성경 공부를 마친 후 모두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면 교회나 단체에 물어보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단체가 서로 매우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뢰아(그리스) 사람들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가 고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이 말씀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당시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교회인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짧은 성경 공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세 자매에게 목사님이 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참된 교회에 대한 질문을 성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 동안 진실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실천하셨다고 믿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2~24).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본을 따라야 하며 또한 기꺼이 따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

저는 예수님이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드러내셨으며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믿으시나요?

2. 당신은 예수님의 참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보이신 본보기와 일치해야 한다고 믿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참된 예수님의 교회라면 지금도 예수님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동안 변경 사항은 없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요 10:35).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경절은 구약 성경이지만 당연히 이것은 신약 성경을 포함한 전체 성경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성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부수면 여러 조각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완전히 동의하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

시느니라”(요이 1:9).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히 1:1) 드러내신 것은 인간에 의해 개선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으며, 개선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

사도나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믿으시나요?

3.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를 발견한다면 당장 입교할 준비가 되셨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요 7:17).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 뜻도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실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하나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잠 2:7).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행 5:32).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26; 요 16:13). 여기엔 틀림없이 그분의 교회에 대한 진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한 훌륭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소망, 456).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를 발견했다면 그 교회를 다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예수님의 참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십시오. 내용은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본 그리고 그분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들에 밑줄을 그어서 강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한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칸으로 나누었습니다(오른쪽 표 참조). 맨 왼쪽 칸에는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썼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성경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적인 행동이 담긴 성경 구절 전체나 일부를 썼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이

말씀 구절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적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는 제가 비교해 보고 싶은 교회들을 적고 각각 칸을 만들었습니다(예, 가톨릭교회, 복음교회, 재림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나서 각 교회가 특정 가르침을 지지하면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에 플러스가 표시되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제가 출석하고 싶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절	성경 말씀	가르침	교회들			
			천주교	복음주의	재림교	침례교
마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책	이것은 역사이며 신화나 전설이 아님	+	+	+	+
마 1:18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음	처녀로부터 기적적인 탄생	+		+	+

저는 성경 공부 30분 전이나 추가 연구로 마태복음 한 장 또는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매우 높았습니다. 한 남성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가 올바른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를 처음 할 때 여러분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중 일부분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이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❶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❷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개인적인 접촉을 진행할 수 있나요?
- 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깊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❹ 참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❶ 구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 ❷ 선교를 위한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 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갖도록
 - ❹ 타인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10

세 단계로 시작하는 새로운 영적 선교



세 단계로 시작하는 새로운 영적 선교

어떻게 개인과 단체, 교회와
합회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이 그것을 성취하리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대의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나의 영이 그것을 성취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약속하노라”(독일어성경, 속 4:6).

여러 크고 작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 개념을 알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획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범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 디케이터에 있는 한 교회에서의 경험

“2019년 4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복음 전도회의 목적은 저희의 선교적 노력에 있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회의 방향이 로버트 메네세즈 목사가 연초에 포르투갈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후로 수정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의 이모는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쓰여 있는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제목의 작은 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교회 기도 부장인 그의 아내 엘리다 사모는 목회지(국제적인 목회 잡지)에서 이 책을 접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직접 읽고 나서 감명을 받아 교회분들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책을 안식일 아침 기도회에 가져갔는데 놀라웠던 것은 기도회 시간에 다른 성도 한 분도 자기 친구가 바로 그 책을 추천해 주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회를 준비하는 동안, 교회는 몇 가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안식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30분 동안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게시판에 기도, 부흥, 성령의 일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속 안식일 저녁에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비디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책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배포되었고 회원들은 앞으로 6주 동안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총회에서 ‘10일간의 기도’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교회에서 만나 부흥과 성령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그들은 특별한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겔프주 합회의 교회 개척 부장인 브라이언 데인즈가 찾아와 주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다음, 교회는 2인 1조로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력 1권: 재림을 위한 준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아침 40일 기도력을 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도 광고 시간 동안 상영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당 다섯 명의 구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책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그 후 그들은 지인들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보살피기로 선택한 이 모임에서 많은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부록: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교인이 각각 다섯 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락을 유지한다면 50명의 교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50명의 성도가 다섯 명을 위해 기도한다면 250명의 성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회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귀중한 모임이 됩니다.

지난 4월 복음 전도회가 시작되자 교회는 부흥하였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로버트 메네세즈의 강연 동안 교회 성도들

은 손님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고 성령님이 손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강연 시리즈가 끝난 후 침례를 통해 열 명의 귀중한 영혼이 예수님께 생애를 바쳤고, 나중에 다섯 명이 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결과를 기도의 힘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Elida Meneses, Southern Tidings, 2019년 9월 20일 자 보도에서 발췌).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선교 방법은 세속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개방적인 국가에서는 이 방법이 새로운 삶을 견고히 하고 소극적인 교회 성도들이 즐겁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룬디에서는 교회를 떠났던 성도 320명이 돌아왔는데 이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자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세 단계

이 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1단계: 새로운 시작 – 영적인 삶을 육성함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자를 집중적으로 읽음으로써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합니다.

2단계: 관계 개선 – 내부 및 외부

성도들은 스스로의 영적 삶을 강화하기 위해 데니스 스미스가 쓴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 1권 재림을 위한 준비』를 연구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구도자 다섯 명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복음을 공유함

복음을 전할 경우 공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 세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단계: 새로운 시작 - 영적인 삶을 육성함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의 도움으로 당신의 영적 삶을 육성하고 예수님과 첫사랑으로 돌아가세요(이 책은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500개 이상의 간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 ▶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 ▶ 이 책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올바른 자기 평가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 ▶ 이 책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두 가지 기본 단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 자신감 그리고 깊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 큰 기쁨으로 증인이 되어 책을 나누었고 그 결과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영어 및 독일어로 되어 있는 160개 이상의 체험 간증을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최신판은 1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6주 동안 나눠서 읽어도 되지만 6주 동안 세 번 읽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읽은 것을 실행에 옮긴 후에야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적 연구 결과, 중요한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6~10번 읽거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시도해 보세요. 여러 번 그리고 전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 고심해 본 사람들만이 좋은 경험을 얻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을 읽기 전이나 후에 <2021년 대총회 10일 기도>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대총회는 <2021년 대총회 10일 기도>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년의 10일 기도 프로그램은 ‘부흥의 간구’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이며 개인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매

일 주어지는 읽기 자료는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 책자는 말하자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소책자의 더 짧은 버전입니다.

저는 <2021년 대총회 10일 기도>를 우리 웹사이트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10 Days of Prayer에 추가할 수 있도록 대총회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이 책자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웹사이트에서 언제라도 영어로 된 말씀을 다운받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보조 교재를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자의 내용에 해당되는 다른 책들과 매일 그 장에 관련한 말씀도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10일 기도 자료는 <https://www.tendaysofprayer.org> 웹사이트에서 한국어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당신은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Day 35

2단계: 관계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키우기

내적으로 관계 키우기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는 40일 기도에 큰 도움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8개의 교과과 나뉘어져 있습니다.

- ▶ 성령의 침례
- ▶ 성령의 침례와 기도
- ▶ 성령의 침례와 선교
- ▶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에 거함
- ▶ 성령의 침례와 성도 간의 교제

다음의 팁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 5~6페이지, 서론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40일간의 공부와 기도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재림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40일 기도와 기도력 연구에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다섯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연락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큰 힘이 있고, 그리스도인 교제에는 격려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동반자를 찾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읽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누고 40일간의 기도와 공부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나 직접 만나서 기도하십시오.

최대의 유익을 얻으려면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이 기도력을 사용해 보세요. 매주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서 매일 교제와 기도 파트너가 될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결혼한 부부들은 둘이 함께 공부할 때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커플은 “함께 읽고 기도하다 보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감과 일체감이 생겼습니다.”라고 썼습니다. 40일 동안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임의 모든 참가자가 그 커플처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동료들 기도 목록에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이를 위해 부록 E에 ‘매일의 기도 목록’을 올려놓았습니다.

외적으로 관계 키우기

다섯 사람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

여러분은 다섯 사람을 정해서 40일 동안 매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하세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과 40일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지도 물어보세요. 관련 팁들은 이 책의 끝에 있는 부록 A와 B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엘렌 화잇은 기도와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

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복음사역자, 255).

엘렌 화잇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통하여 그대는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하는데 이는 그 방법으로만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명시키는 것은 그대의 일이 아니라 그대 곁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전도, 341). “주님께서서는 영혼들의 회심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청년, 315).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제시된 방법들(부록 B 참조)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할 때 당신의 노력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실 것입니다. 엘렌 화잇은 이러한 이중 축복을 이해하였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삼으라.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는 매력적인 것보다 하늘의 사

물들을 더욱 귀히 여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의 증거가 분명하고 지혜롭게 들리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위를 향하여, 256).

“그들의 꾸준한 기도는 영혼들을 십자가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의 자아 희생적 노력에 협력하여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들이 회심하는 과정에 이적을 베풀실 것이다”(7 증언, 27).

왜 40일인가요?

- ▶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 ▶ 요나가 그 성에 회개하라고 외칠 때 니느웨는 40일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 ▶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 ▶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했나요?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가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8).

그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기적의 사역을 보고 또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증거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행해진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위한 전에 없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일어난 일의 순서는 첫 번째 기도, 그다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후 복음의 즐거운 전파가 일어났습니다(행 4:31 참조).

두 배의 축복

40일간의 공부와 기도 참여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놀랍고 축복받은 모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곧 오실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분 곁에 가까이 이끌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일간의 기도와 헌신 연구 동안 당신은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욱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단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0일 기도에서 최대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침에 제일 먼저 40일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깨워 주시기를 구하면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곤한 잠에서 깨우시고 그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셔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받는 자들과 나누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실물, 139).

그리스도께 요청하면 그분은 당신에게도 위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새날을 위한 준비로서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교인들

구도자들을 위한 이 사역은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40일 동안 여러분은 매일 다섯 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

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고자 하는 다섯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목록에는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지인, 전 교인 또는 소극적인 교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중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40일간 특별히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교회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다섯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원한다면 40일이 시작하기 조금 전에 바로 연락해도 됩니다. 아니면 20~30일 정도 기도한 뒤 연락하여 왜,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40일이 끝날 때 즈음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손님 초청 안식일에 교회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준비합니다.

구도자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구도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주 동안의 특별 기도 시간을 계획했어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건강, 가족, 직장 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원하시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그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드리고 <편지 4>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전달합니

다. 또는 손님 초청 안식일이 곧 있을 경우 그들을 초대하여 교회 입구에서 만나거나 모시러 간다고 제안하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도 요청, 관찰 내용 및 연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메모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록 A를 보면 ‘중보 기도를 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다섯 명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한 아이디어는 부록 B: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에 나와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글들 특히 흥미로운 성경 전도지를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9장 258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편지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순서를 알려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면 이 책자는 대개 비옥한 마음밭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작은 출판물을 무료로 배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았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정직한 영혼들이 많다. ...4페이지나 8페이지나 16페이지

정도의 작은 출판물들은 마음으로 사역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부로 얻은 자금을 사용하여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다”(1존 언, 551~552).

리더를 위한 40일 교육 매뉴얼

마지막에 있을 전도회를 포함한 40일 기도력 사용 설명서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설명서는 www.40daysdevotional.com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손님 초청 안식일

4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교회나 돌봄 모임에서 특별한 손님의 날을 계획합니다. 이 행사는 기도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손님 초청 안식일에 온 손님들을 며칠 후나 늦어도 일주일 내에 교회나 돌봄 모임에서 개최할 복음 전도회에 초대합니다.



3단계: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돌봄 모임이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전도회를 통해 할 수 있고, 만약 합회가 주최한다면 합회 소속의 전 교회에서 동시에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한 합회 소속 모든 교회가 동시에 전도회를 열기도 했고, 더 크게 연합회 차원에서 연합회 소속 교회 전체가 동시에 전도회를 열거나 심지어 한 나라 전체가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시거나 해외의 목사님을 초청하여 동시에 전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우리는 이 복음 전도 노력을 'TMI'(Total Member Involvement - 전 교인 참여)라 부릅니다(<https://tmi.adventist.org>)).

신앙을 가르치는 영상 시리즈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복음 전도 시리즈를 찾아보세요. 20~30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비디오가 가장 좋습니다. 부록 F에서는 여러 웹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어린이, 청소년,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신앙을 해 온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대총회 전 교인 참여 운동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복음 전도회, 문서 전도, 건강과 웰빙, 당뇨병, 우울증 회복, 요리학교 등에 대한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 F에서 매우 좋은 웹사이트들이 들어 있는 보물 상자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회 전후에 해야 할 제자 훈련 과정

새로 침례를 받은 교인들이 제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책, 엘렌 화잇의 『정로의 계단』(The Steps to Christ)은 전 세계적으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이 책은 여러 다른 제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서적 중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며, 약 15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갈 수 있을까요?'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요?'로 나뉘어 잡니다. 이 책은 당연히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토론 모임이나 목회자 성경교실에서 함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경 공부 모임

이 특별한 토론 모임은 매우 소중하며 침례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임을 직접적으로 '침례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와 기본적 성경 진리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 『정로의 계단』과) 함께 공부합니다. 수업은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수업에 참석하는 교인은 구도자와 함께 온 분들만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자와 함께 온 사람들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더 세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나 다른 적합한 교사가 이 반을 지도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수업은 가능하면 목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목회자 성경 공부반'이라고 불립니다. 침례 후보자들(교회 청년들과 친구들)은 기존의 주간 성경 공부에 추가로 매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성경 공부 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예배 중에 하는 전도회입니다.

선교 안식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많은 부분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교 안식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통 그달의 첫 번째 안식일에 모든 교회에서 선교 안식일이 지켜졌습니다. 기본 개념은 선교 사업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있는 선교 안식일의 의미는 선교의 정신을 되살리고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 안식일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요구합니다. 헌신적인 한 사람이나 작은 모임이 이 안식일을 맡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안식일은 점차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키워드는 단편 선교 영화, 신선한 선교 노래, 선교 체험담, 복음, 선교 어린이 설교, 선교 설교, 선교 봉사 또는 선교 방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 3단계 프로그램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이 3단계를 밟으며 많은 교인이 용기를 경험할 것이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 즐겁고 보람찬 삶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구도자들이 올 것이며 이 3단계를 반복하는 것은 새로 침례를

받은 교인들에게 좋습니다. 그들 또한 반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바쁘고 전에 없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관해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신자들을 훈련시켜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저희의 시간을 바치게 해야 한다. …특별하고 갑작스런 변화들이 곧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의 비상사태를 대면하며 가능한 한 세상의 타락의 조수를 막아야 한다”(보감, 69).

구도자를 위해 처음 사용했던 책들을 다시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헬무트 하우바일 저 『예수님 안에 거함』 책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 ▶ 예수님께 순복함
- ▶ 예수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 ▶ 예수님을 통한 순종
- ▶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신앙

또 다른 대안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와 헌신 40일 기도력 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놀라운 경험

을 가진 백성,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힘들지만 필수적인 경험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백성'이며 각 주제마다 8개의 기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책과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력 2권』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력 1권』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서로 맥락을 같이하며 이 책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경험들

독일 콜론-칼크 교회에서의 놀라운 경험과 매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반복함으로써 이들이 단 4년 만에 17명에서 65명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은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증언 2/19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보고서는 세속화된 국가에서의 자료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 ▶ 미국 - 앨라배마주 디케이터: 이 장 첫머리에 쓰여 있습니다. 15명 침례
- ▶ 스위스 - 테신: 40일 기도 그룹을 통하여 15명 침례
- ▶ 타지키스탄 - 두산베: 40일간의 노력으로 1년 동안 46명 침례
- ▶ 영국 - 영적 지향 사역을 통한 22명의 침례자

최종 경험

한 목사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성경 속 성령을 주제로 철저히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결국 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

여 직접 말하는 273개의 성경절을 원어로 연구했으며 또 그 주제에 대한 엘렌 화잇의 글에서 독특한 인용구가 2,000개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엘렌 화잇이 성령을 2,000번 이상 언급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그분은 그의 마지막 교회에 능력과 권위와 승리를 주길 원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결승선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 목회자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사랑하느냐?”

“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느냐?”

“너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구하느냐?”

“제가 죄를 고백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에 37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수백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2~14절(한글킹)에서 이 질문에 직접 답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겸비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에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지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찾으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받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를 껌등으로 흘려들다가 핵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야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이 빙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늦게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들은 내용이 우리의 의견, 생활 방식, 태도 또는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랜디 맥스웰, 〈내 백성이 들으면〉, 1995년 퍼시픽 출판사, 72페이지).

예수께서 겸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매일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언 및 기도: 이 3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장의 ‘새로운 영적 선교사가 시작하는 3단계’에 나오는 방법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 페이지의 질문 참조).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이제껏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영향을 우리 삶에 미쳤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이웃들을 돌봄 모임에 초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의미(시편 91)와 건강(뉴스타트)의 8가지 비결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 ① 새로운 영적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단계는 무엇인가요?
- ②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 ③ 당신이 성경 연구/돌봄 모임 및 복음 전도 집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기도로써 고려해 보세요.
- ④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모임은 어떤 경험을 하였나요? 이 경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

-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 ① 개인적인 또한 교회의 새로운 영적 시작을 위해
 - ② 당신이 기록한 다섯 영혼을 위해
 - ③ 당신이 개인, 그룹 또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가능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 ④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갖도록

Day
37

매일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라!

성령의 침례를 계속 구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재림교회 대총회: “성령의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령 침례를 간구할 필요가 있으니 이로써 교회가 복음을 증거 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를 발견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약 1:5).”

카를로스 스테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면 영원까지 가는’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하셀: “성령은 믿음의 들음(갈 3:2)으로 주어지고 우리의 침례(딤후 3:5~6)에서 믿음(갈 3:14)을 통해 받는 한편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채워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지난달 심지어 어제 겪었던 강력한 경험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요하네스 매거: “이에 따르면 성령의 채우심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인은 한 번 가득 채워진 그릇과 같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계속해서 ‘재충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 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주어진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을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울키츠: “우선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채움이 새로운 서약의 핵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케하르트 뮐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듭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데니스 스미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령 충만함이 매일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아의 죽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의 경험입니

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로 우리의 도전 의식을 복돋았습니다(엡 5:18). 이 구절의 동사는 헬라어로 매일 해야 한다는 뜻의 진행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야 성도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렌 화잇

“모든 교역자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행적, 50).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행적, 56).

“원수의 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74. 2).

부흥하라!

다른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엘렌 화잇: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 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가려 뽑은 기별 1, 128.1).

마크 핀리: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흥에 관해 읽기만 해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의 요소들을 실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디 마틴 로이드 존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부흥을 위해 일한 50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찰스 지 피니: “부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계 2:5,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데니스 스미스: “성령의 충만함은 따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수님을 증거 하는 능력과 함께 영적 부흥에 필요한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부으심이 오순절 이른 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 12:49)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흥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항상 방법은 같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리로이 프롬: “성령께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일을 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떤 획기적인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 ▶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시대의 소망, 676. 2)

이 기별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고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에 완전히 순복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17절을 자세히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보여 주십니다.

- 2절**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 내어 태워 버립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할 것입니다.
- 4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 5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 8절**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 16절** 우리의 임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구도자들과 접촉할 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구원과 기쁨에 더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과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생애를 주시옵소서. 아멘.”

권장 사항

중요한 조언: 이 책 전체 혹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단락이나 장을 6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교육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6~10번 읽거나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결과를 통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많은 감사와 열정적인 간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언 대부분은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집중했던 독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경험한 것을 공유해 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한 생애의 경험 곧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 한 경험이 있다면 책에 실을 짧은 메시지를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함은 첫 글자만 책에 신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연락처:** Helmut Haubeil

Rosenheimerstr. 49, D-83043 Bad Aibling/Oberbayern, Germany

이메일: helmut@haubeil.net

약력

헬무트 하우바일(Helmut Haubeil)은 사업가이자 목사입니다. 한 화학회사의 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다가 37세 때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여 16년간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배드 에이블링에 있는 재림교회 실버타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이 교회에서 부흥과 세계 선교 지원 단체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총서 시리즈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Steps to Personal Revival)』의 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책을 쓸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과 봉사의 삶을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한은 이 작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 우리의 놀라운 주님께 있습니다.

다음은 헬무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소책자나 설교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별자에게 이런 문서들이 편견과 미신의 벽을 허물 수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관심을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인용문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출판물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의 편견과 미신의 방벽을 타파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현대 진리가 실린 간행물들과 몇 페이지짜리 전도지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롭고 놀라운 증거들을 읽고, 아직까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주제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빛이 분명하게 될 때 깊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 천사들이 그들 위를 맴돌며 그들이 읽은 출판물에 실린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명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빛을 깨닫게 되었다”(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49.7).

부록 A: 중보 기도의 약속들

우리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40일 기도력 시리즈> 제1, 2, 3권의 서론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더 많은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 그/그녀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소서(요 6:44).
2.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염원을 넣어 주소서 (17:27).
3. 아버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살전 2:13).
4. 아버지, 사탄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해 주소서(고후 4:4; 10:4~5).
5. 아버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요 16:8~13).
6. 아버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행 3:19).
7. 아버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요 1:12).
8. 아버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마 7:21)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9. 아버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예수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골 2:6~7).

부록 B: 사람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1. 당신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알려 주세요.
2. 힘이 되는 내용의 글을 전달해 주세요(전도를 위한 편지).
3.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하세요(그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4. 당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세요.
5. 식당에 초대하세요.
6.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세요.
7. 격려 카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다른 무엇인가를 보내세요.
8. 당신이 직접 요리하거나 구운 것을 주세요.
9. 쇼핑, 박물관 방문 등에 초대하세요.
10. 필요한 경우 ‘쾌유를 비는’ 카드를 보내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11. 적절한 때에 그들의 자녀에게 생일 카드를 주거나 선물을 만들어 주세요.
12. 흥미로운 성경 책자(예: <전도를 위한 편지>)를 제공하세요.
13.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대하세요.
14. 적절한 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15. 가치 있는 조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미국, 이스라엘 등에 있는 재림교 건강 센터 소속의 뉴스타트 과정을 추천하세요. 이 프로그램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천연 치료를 결합시킨 것으로 우리 몸과 영혼에 매우 이롭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긍정적 관계는 또한 다른 건강 요인들(음식, 운동, 휴식 등)을 3배 이상 강화시킵니다. 30년 동안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는 그로사스 - 마티섹 교수 주도로 실시되었습니다(닥터 맨프레드 하이드, 마빈 H. 하이드, 마이클 하이드 - 파스벤더, <뉴스타트 플러스를 통한 의학적 웰빙>, 엠겔스도르페 2014, 334페이지).

16.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관한 책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무료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가격을 받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이 살아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문 안내는 본서 2페이지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주위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되면 다른 좋은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부록 C: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소책자는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 편지 Z1’라는 제목 아래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 세트에도 있습니다.

부록 D: 전도를 위한 편지 요약

● 〈편지 1〉-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앙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백 번 거쳤고 매번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2. 나사렛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가?
3. 성경 혹은 성서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쓰였는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의 작품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매우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습니다. 직접 읽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들이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편지 2〉-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인물: 나사렛 예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특별하신가요? 왜 그분의 삶은 다른 위인전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나요? 목격자들과 역사는 그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진지한 회의론자들이 여러 진실을 살펴본 다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편지 3〉-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간단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고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98%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편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노력하여 얻을 수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누군가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 〈편지 4〉-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일반적으로 이 내기는 '파스칼의 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이크 파스칼은 기독교 가르침의 정확성이 50대50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분별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명한 외과의이자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반대론자인 비고 올슨 박사는 블레이크 파스칼의 진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기독교 신앙에 맞서 죽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연구 끝에 그는 확고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

람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개인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가정 아래 또는 거짓이라는 가정 아래 그들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 내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가능성에 내기를 건 것이 됩니다.

● <편지 5> - 담배와 술을 정복함

아돌프의 엄청난 경험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60~70개의 담배를 피우는 39세의 트럭 운전자였습니다. 또한 아돌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3천 개가 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삶의 여러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좌’에서 무제한 인출 허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승리하는 기독교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중독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편지 5>를 읽어 보세요.

● <편지 6> -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진 성경책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 예언은 특정 세계 제국의 출현과 하나님의 왕국의 성립을 보여 줍니다. 여섯 가지 예측 중 다섯 가지는 이미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여섯 번째 예측도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 예언에 대해 알게 되면 기쁠 것입니다.

● <편지 7> - 예방 아니면 치유?

이 편지는 믿음과 건강 분야의 편견을 간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멜바이즈 박사의 경험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예방의학은 누구에게서 유래되었나요? 14세기의 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18세기의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로부터 수백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은 자궁암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현대 과학보다 4,000년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대규모로 검사해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의 면역 체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염병의 시기에는 두 배로 중요합니다.).

● <편지 8>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성취 가능성 1:1017]

이 편지는 특히 나사렛 예수께서 거룩한 구원자이시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여러 예언과 성취를 비교해서 보여 줍니다. 여덟 가지 세부 사항은 왜 인간의 관점에서 이러한 예언의 실현이 불가능한지를 보여 줍니다.

● <편지 9>-네 도시에 대한 예언

수학적 확률이 200조대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 예루살렘의 황금문 - 전설의 바벨론
- 이상한 바위 도시 페트라 - 두로의 흥망성쇠

● <편지 10>-예수님과 안식일

예수님과 성경의 안식일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 편지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입법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언자들의 임명자로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리고 새 땅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안식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 <편지 11>-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분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기 70년에 일어난 '작은 심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 편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도움이 되는지 보여 줍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여행했던 100만 명의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은

끔찍한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루살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 <편지 12>-예수 재림의 징조

중요한 전환점이 도래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8개의 징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엔 어떠했으며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마지막 질문: 우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곧 종말이 올 것인가요?

● <편지 13>-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생명을 붙잡으라

당신이 오늘 사망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세요(심장마비 또는 사고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 사실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생 일대의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편지 14>-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라”(요 10:10).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분의 재림 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으로 이 새로운 삶을 계속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과 삶의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기 부여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편지 15> - 성경을 읽는 혜택을 누리십시오-어떻게?

아마도 당신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인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일부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곧 계획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올바른 시작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14일간의 실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편지 16>-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죄책감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실제 죄 없이 왜 죄책감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왜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가요? 죄책감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편지 17> - 당신은 누군가에 대해 반감이 있나요?

어떻게 용서하고 잊을 수 있나요? 용서는 당사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정말로 누군

가를 용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용서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시작 세트

시작 세트는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 2, 3, 4, 5, 8, 13, 14 및 Z1이 포함됩니다. 이 편지들은 이미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편지> 총 17편은 모두 2020년 말에 준비되었습니다. 주문 주소, 상품 및 선교 가격은 ‘도서 목록’에 있습니다. 또한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 Letters to Andrew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구도자에게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부록 E: 매일 기도 목록

* 권고 사항: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세요.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집주소: _____

기도 제목: _____

메모: _____

구도자와의 연락 내용: _____



Day
40

부록 F: 신앙을 가르치는 비디오 시리즈

▶ 하나님을 찾는 청년과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

요즘에는 교사가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싶다면 중요한 성경 진리를 모두 담은 전도 시리즈를 찾으면 됩니다. 20개 이상의 강의가 포함된 시리즈가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리더가 먼저 특정 주제를 직접 미리 들어 본 후에 해당 시리즈의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홍보하여 참가자들이 메시지를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

재림교회의 목회자협회에서 개발한 86개의 설교(예언, 교리, 건강에 관한 설교, 가족을 위한 설교) 및 6권의 책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cevangelism.net/sermons/>

▶ 전 교인 참여 봉사 - TMI

대총회 웹사이트(<https://tmi.adventist.org/>)에 전 교인 참여(TMI) 활동에 대한 팁과 유용한 자료 및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전도회, 문

서 전도, 건강 및 웰빙, 당뇨병, 우울증 회복, 요리학교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 27 성경 공부 가이드

어메이징 팩트 성경 연구 자료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으며 공유 및 연구를 위해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www.amazingfacts.org/bible/study-guides

▶ 새로운 시작 – 청소년 편

교사를 위한 설명도 들어 있는 완전히 업데이트된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구성된 26개의 성경 공부 자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된 설명이 제공됩니다.).

<https://asiministries.org/newbeginnings/>

▶ 예수님을 높이라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30개의 강의 및 16개의 어린이 강의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liftingupjesus.net>

▶ 다니엘의 비밀을 풀다

마크 핀리가 제공하는 12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tiswritten.com/bible-studies-unsealing-daniels-mysteries>

▶ 희망이 깨어나다 – 전도 시리즈

존 브래드쇼의 20가지 강의

전무후무한 요즘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십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소망이 깨어나다(Hope Awakens)〉는 이와 같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CD \$ 59.99

<https://itiswritten.tv/programs/hope-awakens>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20개의 주제

덕 배칠러 목사님은 이 독특하고 강력한 성경 연구 시리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에 빠지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 시점과 다르게 성경을 연구해서 지구의 실제 역사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연구를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amazingfacts.org/media-library/watch/archives/o/144/t/time-is-ticking-away>

▶ 계시록의 고대 발견

26가지 강의(3ABN)

마크 핀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 주는 성경의 위대한 예언을 탐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evelation's ancient discoveries](https://www.youtube.com/watch?v=revelation's%20ancient%20discoveries)

▶ 성령과 기도에 관한 비디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27개 강의, 로이 루글러스 목사님의 3개 강의, 콜린 혼 목사님의 5개 강의를 '비디오' 및 '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40일 기도력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piritbaptism.org/>

▶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나요?

드와이트 넬슨 - 3설교

<https://steps-to-personal-revival.info/>

▶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오디오북, 7부, 낭독

(신)심은희, 최철규, 박지혜, 김난경, 정재명, (구)성시영

비디오 설교,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의 7부

<http://steps-to-personal-revival.info>

▶ 오컬트, 주술 및 사탄주의 유행

설교 11번

<https://www.gcevangelism.net/sermons/>

▶ 청년을 위한 진리 전도 시리즈

5~13세 어린이를 위하여

Young Disciple's Truth 4 Youth DVD 시리즈는 기별을 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집단인 어린이들에게 완전한 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완전한 복음 시리즈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5세에서 13세 사이입니다.

바나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5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가 그리스도께 평생 헌신하는 것이 성인들보다 다섯 배나 더 쉽다고 합니다.

\$ 129.99

www.itiswritten.shop/product/truth4youth

▶ 청소년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질문' - 10개의 주제

<https://www.amazingfacts.org/media-library/watch/archives/o/116/t/most-important-questions--miq->

▶ 궁극적 목표 - 4개의 주제

이 짧은 Ultimate Purpose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기본 질문에도 유용합니다.

<https://www.amazingfacts.org/medialib-ray/watch/archives/o/125/t/ultimate-purpose>

▶ 믿음을 위한 방정식 - 6개의 주제

구원의 기본을 다룹니다. 덕 배칠러 목사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로 당신을 이끌어 줍니다. 성경 공부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단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영적 세계로 당신을 이끌어 줍니다.

<https://www.amazingfacts.org/medialibray/watch/archives/o/156/t/formula-4-faith>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지막 경험

루이사 스테드는 영국 도버에서 태어나 1880년경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처음 몇 달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휴가는 바다에서의 삼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남편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강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익사했습니다.

루이사는 이제 남편 없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녀는 집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나는 그런 문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그녀는 아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팔에 아이를 안고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그 시간 내내 그녀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성경에는 모든 것을 잃고도 당신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이 저를 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1882년 공원 한가운데에서 루이사는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르자 한 남자가 멈추어 섰습니다. “노래를 참 아름답게 부르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모든 일이 잘 풀리시나 봅니다.” 그녀는 “저는 잘 지내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노래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남자는 그녀가 직업이 없고 남편이 사망했으며 먹을 것이 바닥났고 그녀가 딸과 함께 이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부르시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신사는 당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철도 노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무직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일을 맡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아주 잘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일합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있든 아니든 당신은 그 일을 아주 잘해 냅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양심적인 업무와 조직에서 보여 준 뛰어난 재능으로 그녀는 계속 승진을 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철도 노선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그녀를 더 믿습니다.” 그녀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많은 월급을 받았고 큰 집을 살 수 있었고 딸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예수께서 내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씩씩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입이 아주 좋은 일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특히 흑인 아이들을 위한 선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딸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돈을 다 써 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딸과 함께 짐바브웨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1917년 짐바브웨에서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 이런 생

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딸도 어머니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루이사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녀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P.G.의 설교 중에서).

1.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2.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3.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후렴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Melody: www.Louisa M.R.Stead)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3년 동안 줌으로 임마누엘 새벽기도회를 하며 많은 성도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분들께서 책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특별히 미국에서는 김화경 집사님과 김은주 집사님, 한국에서는 박종기 장로님, 김준현 장로님, 김홍균 장로님께 서 큰 후원금을 보내 주시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근 목사님의 헌신적인 번역 봉사와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번역을 수정해 주신 안창현 집사님과 정재현 집사님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연주희 집사(코디네이터 겸 편집자)